

**금추일언** 마음을 비워 근심이 없  
으면 이는 이미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마치 날으는 새가  
잠깐 내렸다가 곧 가는 것과 같다  
(법구경·나한품 272절)

# 東大新聞

편집장	김민준	주필	송정	고이림	서태	구본영
편집부	김민준	주필	송정	고이림	서태	구본영

퍼낸 곳 :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권동3가 26  
 ☎(02)26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0561)770-2057

제 1224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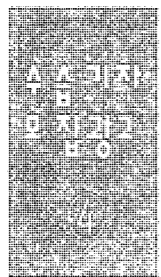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7년(불기2541년) 5월 12일 (월요일)

1



## 동국 아흔 한개의 생상, 동대신문이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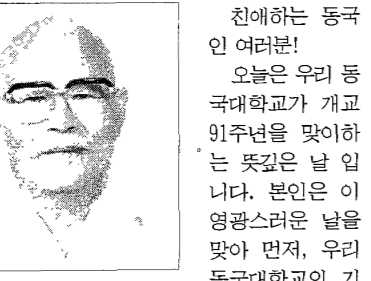
1908. 5.8 한국불교계의 선각자들이 교육구국(教育救國)의 기치로 명진(明進)학교를 설립해 동국대학교의 모체가 되었다. 1930 중앙불교전문학교로 개편, 1940 혜화전문학교로 개칭, 1946 동국대학으로 개편, 1953 불교대학, 문과대학, 법장대학, 농림대학과 대학원으로 편성해 우리나라 첫번째의 종합대학으로 승격, 1954 이학부 신설, 1963 경상대학교 이부대학 신설, 1966 산업대학 신설, 1967 행정대학원 신설, 1973 경영대학원을 신설, 1978 신리의 고도 경주에 제 2캠퍼스인 경주대학을 설립, 1979 교육대학원 신설, 1983 부속한방병원을 개원, 1984 경주대학을 경주캠퍼스로 개편하여 문리과대학, 법경대학, 한의과대학으로 편성, 1986 문리과대학을 인문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으로 분리 개편, 1987 법장대학은 법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으로, 법경대학은 법정대학과 상경대학으로 분리 개편했고, 예슬대학과 의과대학, 정보산업대학원을 신설, 1988 동국의료원을 신설,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과 의과대학부속병원을 의료원 산하로 편성했고, 의과대학 부속 포항병원을 개원했다. 지역개발대학원을 신설, 1983 국한방병원을 서울에 개원, 1990 불교대학원을 신설, 1991 경주캠퍼스 의과대학부속 경주병원을 개원했고, 산업기술대학원을 신설, 1992 일본 용곡대학, 미국 하와이 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법인명을 學校法人 東國學院에서 學校法人 東國學院으로 변경, 1993 중국 남경대학교, 칭화대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서울·경주캠퍼스간 행정전산망을 개통, 개교90주년사업본부를 개교 100주년기념사업본부로 변경, 1994 월간 '동국소식'을 발간하고, 인천 길 한방병원을 개원했다. 또한 "본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현실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교육목적을 제정, 1995 학부제를 도입, 1996 제 3캠퍼스 이전계획을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 개교 90주년기념 문화관을 준공, 분당에 한방병원을 개원, 교육개혁령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

### 추송기자보집안내

△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0명  
 △응시자격: 1학년 남·여 재학생  
 △모집분야: 취재·사진기자  
 △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관사진 1매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원서접수: 5월 28일(수) 오후 5시까지  
 △전형방법: ①자기소개서 작성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② 면접  
 △면접일시 및 장소: 서울-5월 28일(수) 오후 6시  
 경주-5월 29일(목) 오후 6시  
 서울·경주캠퍼스 본사 회의실  
 △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서울-260·3492  
 경주-770·2057

동대신문사

# 개교기념 축사 민족사학의 자존심으로 설립 21세기, 참사람 열린교육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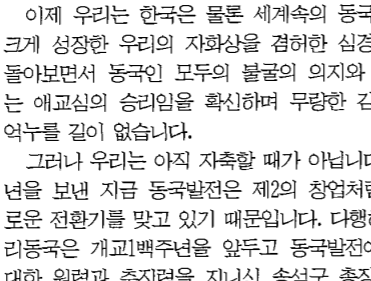
91주년 새로운 전환기 맞아 세계의 대학으로 발돋움 하길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국대학교가 개교 9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본인은 이 영광스러운 날을 맞아 먼저, 우리 동국대학교의 기틀을 마련하신 구 한말 불교계 선각들의 숭고한 구국정신과 교육인국은 물론 불법종포의 서원을 실현하고자 했던 그분들의 높은 이상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사를 드리코자 합니다.

아울러, 개교이후 내외의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강인한 의지와 애교의 일념으로 동국의 오늘을 있게 한 종단과 역사이장, 역대 총장, 교직원 그리고 동문여러분들의 노력과 봉사 와 성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회고하던대 본교가 개교하던 1906년 초는 일제를 위시하여 세계 열강들이 개화를 빌미로 한반도에 침투하기 시작한 전황기로서, 국운은 쇠 퇴하고 한국불교 또한 큰 시련에 직면한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 불교계의 대덕들이 나라를 구하고 불국정토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은 불교를 건국정신으로 하는 신교육밖에 없다는 자각과 신념으로 정재를 모아 명진학교를 세운 것이 우리 동국대학교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이는 실로 전 불교계는 물론 우리민족 전체에게 새로운 희망과 축복을 주는 획기적인 불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교한 우리 동국이 순탄한 길만을 걸어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하에서 항일운동 등으로 세 번이나 폐교를 당하는 수난을 겪었으며, 해방 후에도 격동과 혼란으로 점철된 민족사의 발전과 더불어 함께 해 오며 하면서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실로 오늘의 명문 동국으로 성장,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은 물론 세계속의 동국으로 크게 성장한 우리의 자화상을 경이한 심경으로 돌아보면서 동국인 모두의 불굴의 의지와 불타 는 애교심의 승리를 확신하며 무량한 감격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자축할 때가 아닙니다. 90 년을 보낸 지금 동국발전은 제2의 창업처럼 새 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동국은 개교백주년을 앞두고 동국발전의 지 대한 원력과 추진력을 지니신 송석구 총장님을 중심으로 대학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과 창의적인 발전계획이 적극적으로 기획, 실현되고 있으며 이에 호응하여 전 불교계와 20만 동문 여 러분들도 동국발전의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 지고 협조, 성원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귀감으로 삼고, 90년의 산술적 역사에만 의존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지 향적인 역사를 창조하되, 허창과 졸속으로 후세 에 지탄을 받는 부실과 착오가 있었어도 아니될 것입니다.

통일조국의 미래를 응시하고 세계의 중심대학 으로 우뚝 설 우리동국의 웅혼한 기상을 예감하 면서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산의 불교종 합병원 건립, 제3캠퍼스의 조성 등 역사적인 사 업들을 하나하나 알차게 이룩해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동국발전을 위한 한 길을 걸으며 30년, 20년, 10년 장기근속표창을 받으 시는 교직원 여러분과 특별 학술연구 및 공로포 장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보내 면서 동국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동국가족 여 러분에게 부처님의 자비공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국대학교 개교 91 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힘과 미래를 열려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에는 오늘의 동국 대학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정을 유지해 주신 동국학원 오복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과 전임 총 장님, 종단의 대덕스님, 그리고 동창회를 대표한 유주형 부회장님과 내외 귀인 여러분이 함께 자 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동국 1백년을 시작하는 마지막 90년대 중 1년을 넘긴 이 시간에 세상 대학교의 역사를 뒤 돌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지평을 여는 견인차요, 좌표이기 때 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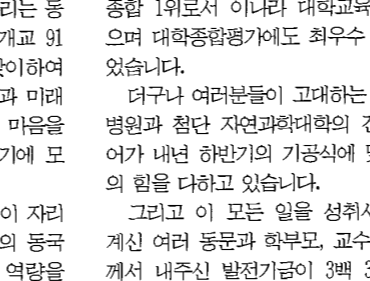
동국대학교는 누구나 잘 알 듯이 불교계의 선 각자들이 서세동점(西勢東漸)의 불길 속에 민족 의 주체성과 전통의 자존을 후세의 교육을 통한 입국의 의지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 설립되었습니다.

일제에 의한 몇차례의 폐교, 그리고 광복, 광 복의 기쁨과 더불어 우리는 삼대사립(三大私立)의 명문(名門)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교계가 가졌던 여러 취약점과 우리 의 의지 약화 등으로 오랫동안 상대적 열등감에 자포자기 했던 일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원력(願力)은 우리에게 좌절만을 안기 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희망과 불타는 정열 그리고 불 퇴적인 용기, 신선한 긍정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21세기의 교육의 지표인 개혁과 변 화의 주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해는 교육부의 교육개혁 실효 평가에서



종합 1위로서 이나라 대학교육개혁을 선도하였 으며 대학종합평가에도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 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이 고대하는 일산의 불교종합 병원과 첨단 자연과학대학의 건립도 설계에 들 어가 내년 하반기의 기공식에 맞추기 위해 혼신 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 여기 계신 여러 동문과 학부모, 교수, 교직원선생님들 께서 내주시신 발전기금이 3백 3십여억원에 도달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마음이 있는 것이 현실에 있다 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은 비상의 날개를 달고 창공을 날아 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들을 파와 땅의 회생에서 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학생에게 봉사하고, 엄격한 학칙 속에서 무섭 게 공부시켜, 대학이 사회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줄 그러한 대학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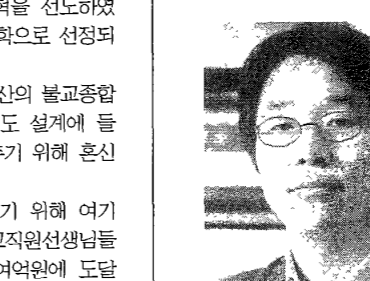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고, 참인간이 되는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학문을 다 양하게 전공하는 대학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불교학과 동양학의 특성화, 경 제·경영 및 전기·전자, 반도체, 정보, 컴퓨터, 기계공학이 학제화된 특성화, 토목·건축의 특성 화, 나아가 사법대의 전문화를 통한 새로운 시대 의 대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백년 동국의 첫발을 내디뎠습니 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동국인 여러분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출발을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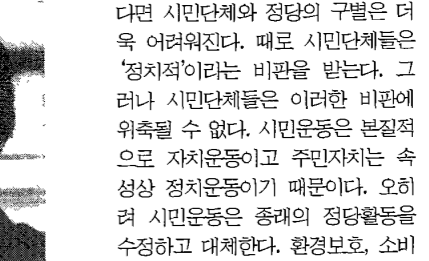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석구 총장 취임

## 동/문/칼/럼 대학인의 사명



다면 시민단체와 정당의 구별은 더욱 어려워진다. 때로 시민단체들은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비판에 위축될 수 없다. 시민운동은 본질적으로 자치운동이고 주민자치는 속성상 정치운동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민운동은 종래의 정당활동을 수정하고 대체한다. 환경보호, 소비자주권, 참교육, 경제정의, 여성주의 또는 생명가치 등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들은 비정부조직(NGO)으로 분류되지만 체제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정당대체 현상은 정당의 표류에 대한 반작용이다.

97년 4월 25일 한국자원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제환경심포지엄에서 호주의 남기영 박사는 '환경보전에 서의 전문가의 역할'을 테마로 강연 했다. '실현에 나서지 못하는 전문가'라는 발언은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다. 자연과학이 과학철학에 머물러 법학과 같은 사회과학의 실천성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실천이 없는 법이론은 공허할 뿐이다. 대학을 졸업한 많은 돈을 벌거나 편히 사는 것도 좋지만 대학에서 배우고 익힌 정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한 것은 공동체에서 실천 하는 것은 더욱 값진 일이 아니겠는가?

패착한 환경을 갖춘 신도시에서 주말이면 가족과 나들이를 하거나 외식을 즐기는 시민들은 별로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인다. 즐겁게 어울려 다니는 신세대들은 더 그렇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시민운동에 무관심하다. 반면에 개인적 즐거움도 마다하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있다. 이 사회에는 자기일조차 하지 않으면서 주변에 해악을 끼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생명가치의 침해나 환경오염, 그리고 잘못된 교육제도와 같은 해악은 미래세대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자기의 문명과 즐거움을 포기 하면서 이러한 해악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자기만의 인임을 추구한다면 누가 자기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 주겠는가? 시민운동은 바로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합작투자이다.

## 열린리틀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 등을 기드립니다. 하이텔(DSL)연락처, ID : dpress@elil.com과 여론함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배낭여행기를 모집합니다. 해외배낭여행의 경험이나 유의할 점 등 오는 30일까지 보내 주시면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나? 病쟁이

삼삼, 사삼, 오삼 반드시 모셔라! 있다. 그리고 무엇인가로 둘러싸여 있다.

병적인 강박관념, 철저한 자기비도, 그리고 가벼운 내 존재의 귀찮음.

사삼의 모래폭풍같은 혼돈 속의 혼돈과 그 후 소름끼치는 적막이.

원은 모셔라! 없다. 그러나 수많은 모셔라! 그 등골을 만든다.

이 남 박 (한국어문학부학부 1)

### 한국어문학부 새내기특별강좌 시부분 장원작

부처님까지 수고하실 필요는 없고, 귀신 하나라도 저승사자 하나만 청와대에 보내 주세요.

부처님, 생신 축하해요.

스님, 검소해달라 필요가 있지 않음 까요?

티코타도 증생들을 만날수 있습니다. 굳이 '다이너스티'를 탈 필요는 없지 않음까요?

부처님은 설과할할 때 맨발로 다니셨죠?

3이 티도해서 좋은세상 만들어 주세요.

왜 장로가 대통령인 세상을 만들었나요?!

은누리에 광명 비추소서...

순가락으로 끄는 대학으로 만들어 주세요.

모든 동국인에게 취업이라는 자비를...

아직까지 난 불교가 뭔지 모르겠는데

### 동/악/광/장

주신배 수고 많았어요. -L.K.H

99년달

기속사 오픈하우스때 만나거나 불러주세요. 제발 부탁이니더

열심히 합시다

우리 DKBS 수습곡원들! 형들은 항상 너희들 지켜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길바래.

15기 영미가

알랭 정기공연(1학기) 연습 힘들더라도 열심히...

1일생 96

별다른 여러분 힘들더라도 힘내요!

17기

연합공연을 준비하는 모든 통일원 군들 열심히 준비하세요. 저는 열심히 중학생 가르칠게요.

11월

특히! 특히! 특히! 특히! 특히!

192

강철사랑 시구들 연습 끝까지 열심히 합시다.

9701가

화학과 김순홍 교수님의 학술진보 상 수상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M.S

재활용 선배들의 예비졸업을 단양으로 축하드려요

새내기

김원인 이준마! 보료보료 이쁜이 퍼머히터 축하드려요

1-따리

법정의 97학번 정기헌 유루스 수습 판자 축하한다. 열심히 흔들러라

### 목격골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고학과 여러분!! 힘을 냅시다.

후술타리 파이팅! 우리 통노한 열심히 해서 일등 먹어요.

지하니

정성학부(아) 반반(한뫼) 열심히 사시다.

1-단 한 학우

신방과, 축구대회 축출함 대해서 FIGHTING!!!

방송반 힘내자! 우리는 반드시 온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주부터 아시아지역학부 공간 투쟁 합니다. 그리고 분관 앞에서 선전전도 합니다. 많은 관심을...

1-아시지역학부 대표

단국대 부총님이 잡혀갔습니다. 단 대학들에게 힘을 보내주세요. 우리 총회장님, 부총님 올해 말까지 동약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1-力

5월은 경영학과 98학번 쉬는 달

96전자·전기 연수, 96공학 보경, 99인문 우석, 97공학 효균, 97법 덕후, 97법 상선은 연락바랍니다. 무역 3 영신 36기 최지운

1-力

사법학회 M.T를 곧 떠납니다. 우리 후배들과 선배님들 좋은자리 되었을 합니다.

1-力

96 지성,진오,태준

여러분 여름 농활때는 뒷전에서 직접 조심하세요. 빠뜨리면 허무해

축하합니다

5월 17일 세월이, 5월 12일 하준, 5월 27일 대일이, 5월 28일 나의 생일을 나 00이 축하한다 많이 많이!

스킨맨(혹은 로션맨)과 여자사과의 약혼을 축하해요!

회계 91 일재철

아영언니의 퇴원을 무지 축하해!

1-이쁜이가

정미영! 나도 축하한다! 패럴주이보

1-난바다!

정·경·연 6기 기장이 강찬주 학형으로 결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1-모든 6기

신방과 체육대회 무사히 치러져 축하해요!

1-못가서 아쉬워 한 이가

지은이형, 일단 축하하고, 생일반 언제든지 영어책을 준비가 돼 있어요. 받고 싶은 선물은?

1-멋진 후배

수고하셨습니다

아·총 농활을 다녀온 미라네골 식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땃발

Plus M.T 다녀온 5기, 6기 모두 두 수고했어요.

1-5기 장총이

### 온방골

축하합니다

해경, 문숙,효선,생일 축하해 -수교

무지무지 사랑하는 친구 미정아! 이쁜이비트 구한겨 축하해. 화이

다행관 식당

월	양수복음(1200)	두부간장기백반(1200)
화	탕수육백반(1500)	회덮밥(1200)
수	불고기덮밥(1500)	안두부백반(1200)
목	스카제타백반(1300)	후랑그루음밥(1200)
금	소고기야채백반(1300)	비빔냉면(1200)

동국관 식당

월	밤정백(2800)	탕수육백반(3000)
화	사골우거지탕(3000)	아구령(3800)
수	포제어묵(2800)	쇠고기부들밥(3000)
목	골장전골(3000)	야채백(2800)

교내관 식당

월	김치부들밥(1200)	생면탕(1300)
화	치킨야채(1500)	복이국(1200)
수	부채백(1300)	오징어 숙회덮밥(1300)
목	문유정조면백반(1500)	홍장자 채게(1200)

수고하셨습니다

대경총원 졸업식 준비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효

보영's 코끼리 만드느라 수고했다. 꿈에 다니는 코끼리 안나오길...

1-불동 친구

경사학부 D번 아그들이 중간고사 치느라 수고했다. 대경총회 때 끈기 있게 풀어버려라

1-H.J

안전공 2년 공들이. 공순이를 시험 친다고 수고했다.

1-배용준

내가 무지 사랑하는 Y와 H님 수고 하였습니다. 나 가르쳐주신다고요.

1-애린이

화학과 3학년 일등 졸업여행 부사 히 다녀와서 참 다행이구 과대 승

수고하셨습니다

대경총원 졸업식 준비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효

보영's 코끼리 만드느라 수고했다. 꿈에 다니는 코끼리 안나오길...

1-불동 친구

경사학부 D번 아그들이 중간고사 치느라 수고했다. 대경총회 때 끈기 있게 풀어버려라

1-H.J

안전공 2년 공들이. 공순이를 시험 친다고 수고했다.

1-배용준

내가 무지 사랑하는 Y와 H님 수고 하였습니다. 나 가르쳐주신다고요.

1-애린이

화학과 3학년 일등 졸업여행 부사 히 다녀와서 참 다행이구 과대 승

# 개교 91주년 맞아 동국발전 재확인

## 지난 7일 기념식 개최...공로상 13명 수상·김재형 동문 금장위원장 수상



▷ 개교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읽고 있는 본교 송석구 총장의 모습

개교 91주년 기념식이 지난 7일 90주년 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오석원 이사장, 송석구총장을 비롯한 내외인사, 교직원, 학생 등 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기념식은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이법산 정경원장의 발원문 봉독, 임기중 기획조정실장의 연례보고, 표창장 및 공로상 수여, 총장기념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의 축사대독, 교가제창, 사총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재 KBS '용의 눈물' 연출을 하고 있는 국어국문학과를 61년 졸업한 김재형 동문이 본교 및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금장위원장을 수여받았다. 본교 정자계산원의 자매대학 일본 동북전자 전문학교 모찌마루 칸이찌로우 이사장 내외가 참석하였다.

단체공로상은 교육개혁 우수대학선정과 대학종합평가와 관련하여 대학종합평가연구위원회의 실무팀에게 수여됐으며 지난해 90주년 기념행사에 노고 큰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에게는 특별공로상이 수여됐다.

기념식이 끝난 후 문화관 그늘에서 개교91주년 기념 축하연회가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공로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서울캠퍼스〉  
 △김진환(기획조정실 기획과)△백경선(학생처 장학과)△이동규(중앙도서관 사서과)△박상관(연구교류처 연구부)△장용수(총무처 총무과)△오세형(관리처 관재과)△이규옥(분당한방병원 서무과)  
 〈경주캠퍼스〉  
 △박수경(외과대학 교학과)△이상병(경주 교육방송국)△최진식(경주병원 서무과)△이태영(포항병원 간호과)△신봉길(사무처 총무과)△강수원(사무처 관재과)

# 우수 강의계획서 선정

## 오는 2학기부터 실시...연구비 지급 등 혜택부여

교무처(처장=김주환·지리교육) 교무과는 97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전 교과목을 대상으로 우수 강의계획서를 선정한다.

국제화·개발화 시대에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질 높은 교수, 학습 지도를 위한 우수한 강의계획서의 작성과 활용을 유도하여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우수 강의계획서 선정은 캠퍼스별로 시행하며 계열별로 우수작 1편씩을 선정한다. 선정된 교수에게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교원직업평가에 일정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97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서 제출마감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심사는 6월중에, 시상은 오는 2학기 전체교수회의 때에 있다.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포함된 요소의 적절성 △강좌개요 제시의 적절성 △수업목적 제시의 적절성 △교육내용제시의 적절성 △교육방법제시의 적절성 △교육자료 제시의 적절성 △학습과제 제시의 적절성 △평가제시의 적절성 △진도계획 제시의 적절성 △수업계획서 양식의 적절성 △포함된 요소의 창의성.

# 97 임금협상 타결

## 어려운 경제 상황 통감 기본급 5%인상

97년 노동조합과 학교측의 임금협상이 지난 1일 교무회의실에서 6차 교섭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합의된 내용은 △임금 기본급 5%인상 △효도수당 연 10만원 인상 △기능직 등급 상향표표 체결 등이다. 이는 지난 5차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노조 측이 요구한 임금 기본급 7.8%인상에 비해 2.8% 적은 인상률이다.

이에 노조 최일우 사무국장은 "한

측스럽지는 않지만 학교측에서 실업률 증가와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고 어려움을 극복에 동참해 줄 것을 주장함에 따라 양보의 자세로 대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2개월 이상 늦어진 협상 타결에 따라 3월부터 적용되지 못한 임금소급분은 5월분 임금에 더해 지급된다.

# 덕암 세미나실 동판제작...구자선동문 뜻기려

1백주년사업본부(본부장=한보규·선학)는 지난 7일 개교 90주년기념동판 덕암세미나실에서 '덕암세미나실 동판 제작 및 개교기념 제1회 기업인 성공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경영대학원 총서 교학부장의 사회로 열린 이번 행사는 △송석구 총장의 치사 △한보규 1백주년사업본부장의 경과보고 △김인제 경영대학원장의 인사 △경영대학원 동창회 고문이자 태우주택 대표이사인 덕암 구자선의 답사 △동판 제판식 및 테이프 커팅 △송석구 총장의 명명 선포, 2부 △김

창열 경영대학원 제4기 회장, 백승호 경영대학원 제4기 수석부회장, 이형설 경영대학원 동창회 명예회장의 개교기념 기업인 성공사례발표, 3부 리셉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송석구 총장은 본 행사의 치사에서 "본교 발전에 이바지한 덕암 구자선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본교 최초로 세미나실 이름에 아호를 붙여 영광이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동국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보리수

'세상에 만약 높고 병들고 죽는 이 세가지가 없었다면 여래(如來)는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붓다께서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이유를 밝힌 '잡아람 346경'의 말씀이다. 중생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부터 생사의 바다에 부침(沈沈)해 왔고 그 일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중생의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붓다가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음을 위 경전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생노병사란, 오래 그러려니 하고 순리로 여기며 살아야고를 잊기는 하지만 그것이 괴로움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고통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괴로움은 이같은 존재적 차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오히려 현실 속의 괴로움이 더욱 절박한 문제로 느껴지기도 한다.

# 붓다 오심을 생각함

말뚝고 굶주린, 해결되지 않는 욕망은 괴로움이다. 고독과 소외, 인간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온갖 갈등도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어디 그 뿐이랴. 차라리 '삶은 전체가 괴롭다'고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더욱 실감나는 현실이라 해야 할 것이다.

붓다는 중생의 괴로움을 건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요, 따라서 인간의 괴로움이 존재적 차원만이 아닌 이같은 현실고에 대해서도 붓다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현실에 붓다가 오신다면, 그 분은 가장 먼저 어떤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깨워 구제하고자 하실까?

붓다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한다. 지금 우리들은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참된 인간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저마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 가장 고귀하고 독존(獨尊)한 모습이다. (天上天下 唯我獨尊)' 바로 붓다의 모습 그대로이다. 그런 참된 인간은 허상에 매달리지 않는다. 내면의 성숙함보다 상투처럼 보여지기 위한 나를 만들어 가기에 급급하지 않는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을 수단으로 도구로 삼는 일도 없다. 모두가 붓다적 존재임을 인정한다. 그래서 정치인들, 기업가들, 근로자이든, 공부하는 사람이든 제 자리에서 저마다 붓다처럼 환하게 빛을 발하여 서로를 비추어 주는 모습을, 그것이 진정한 참 인간의 모습일 터이다.

정리며 경제며 사회의 암울한 그림자들, 그리고 인육(人肉)까지 먹는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의 참담한 복식 소식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는 정말 괴로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이 같은 괴로운 현실을 구제하는 것은 결코 붓다가 아니다. 그것은 저마다 참 인간으로 되돌아간 우리를 자신의 뜻인 것이다. 다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의 현실에 오시는 붓다를 생각함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봉춘

불교문화대 교수

# 북한 주민돕기 성금 전달

## 송월주 총무원장에게...성금 1천 6백여만원·쌀 40만원어치

법동국민 북한주민 돕기 운동본부는 지난 4일 북한주민돕기 성금 1천6백여만원과 쌀 40만원 어치를 조계사 총무원장실에서 송월주 총무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송총무원장은 "동국인이 나서서 북한주민 돕기에 힘써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김익기(사회과) 교수회장은 "기대 이상의 많은 동국인이 동참의 모습을 보여 뜻밖의 큰 성과를 얻은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김교수회장은 "기금이 많이 걸린 것도 하나의 성과지만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진 가운데 다작적인 방법으로 운동이 펼쳐진데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덧붙이며 "법동국민의 화합을 이뤄낸 이 운동이 동국 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북한주민 돕기 운동은 교수회·직원노조·총학생회·대학원 총학생회 공동추진으로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로

지난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치러졌으며 모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교수회=3백40만1천5천원 △직원노동조합=3백만원 △총학생회=75만1천1백50원 △대학원총학생회=34만2천3백20원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90만1천5천원

원 △19기년 등반대회=27만6천2백60원 △1식2찬 1백원 절약운동=4백28만6천6백원 △우리말 국수판매 수익금=2백42만1천2백3백원 △일일장터 수익금=7만2천4백원 △기증물품 판매 수익금=86만4천원 △쌀 모금=39만15백원.

# 교수동정

- ▲정윤우(행정학)=정년교수 및 60세 이상 원로교수 모임인 동지회의 임원 개선평가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
- ▲김호일(국어국문학)=지난 10일 한국국어학회 97년 분철 학술발표회에서 '베터한텐트의 작품을 통해본 언어의 문제-구변국 카스파를 중심으로'를 주제발표
- ▲김해중(통계학)=지난 2일 한국과학 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개최한 '제7회 과학기술 우수논문 시상대회'에서 'On a Constrained Optimal Rule for Classi-

fication with Unknown Prior Individual Group Membership'이란 논문으로 우수 논문상 수상

# 본사사령

- ◇의원면직
  - ▲사회1부장 = 고지은(사과대 사회3)
  - ▲김정화(인문대 인문학부 2)
  - ▲임세라(이부대 관광경영 2)
- (이상 4월 30일자)

# 신규직원 및 직원인사 발령

학교당국은 지난 1일 신규직원 및 직원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인사발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직원인사  
 〈서울캠퍼스〉  
 △총무처 총무과=장 윤 △정보산업대학 교학부장=이명호 △기획조정실 기획과=주현석 △교무처 교무과=이권하 △중앙도서관 사서과=박종진 △중앙도서관 열람과=노정오  
 ◇신규직원인사  
 〈서울캠퍼스〉  
 △학생처 학생과=정병경 △학생처 장학과=유관호 △총무처 경리과=김대영 △관리처 구매과=김운수 △사범대학 교학과=김병중 △이부대학 교학과=조순식 △총무처 총무과=김홍모 △전자계산소 전산과=문상국 △중앙도

서관 사서과=이광휘 (경주캠퍼스)  
 △교무처 교무과=박현원 △교무처 학술연구부=임영수 △사무처 경리과=김영권

# 장학수혜율 발표

장학과(과장=오종호)는 97년 1학기 교내·외 장학금을 총2천5백68명에게 지급했다고 지난 4월28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교내 장학금은 2천2백63명(1학년 2백8명, 2학년 6백37명, 3학년 7백42명, 4학년 6백76명)에게 20억5천9백58만1천7백5백원이 수여됐고 동문회, 장학재단 등에서 지급하는 교외 장학금은 3백2명에게 3억4천47만9천5백원이 전달됐다.

# 부처님오신날 봉축음악회 개최

문화예술대학원(원장=홍윤식·역사교육)은 지난달 29일 소피텔 엠바서더 호텔 대연회장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3시간동안 부처님 오신날 기념 봉축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석원 이사장, 송석구총장등 내·외귀빈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으며 출연진 모두가 본교 동문과 문화예술대학원생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3부로 나뉘어 진행된 행사는 1부는 봉축행사, 2부는 축하공연이 있었으며 3부는 문화예술대학원생인 가수 송국국의 사회로 동국불교국악관현악단 공동후의 30여명의 음악회가 있었다.

이후 권영심(한국음악 전공)의 승무, 인간문화재 안숙선의 판소리 공연, 김덕수(경주캠퍼스 객원교수) 사물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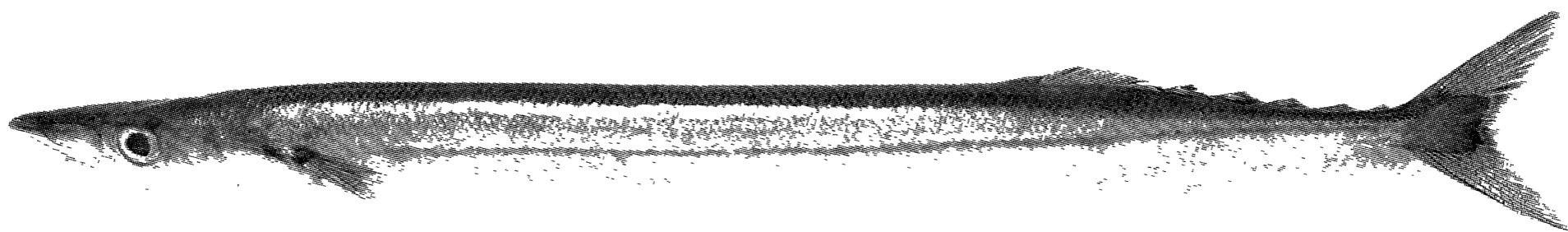
이해의 비나리 공연 등이 이어졌다.

김병기 경주캠퍼 부총장  
 화갑기념 논문집 봉정

경주캠퍼 김병기(국제통상학)부총장은 지난 2일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보험학회 주최 '창립33주년 겸 국제회의'의 석상에 참석해 '화갑기념 논문집'을 봉정 받았다.

이날 회의는 2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결산보고 △는 문봉정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으며, 송석구 총장, 이원식 경주시장, 교직원 일동의 이념으로 기념화환이 증정됐다.

# '김씨 아줌마네' 거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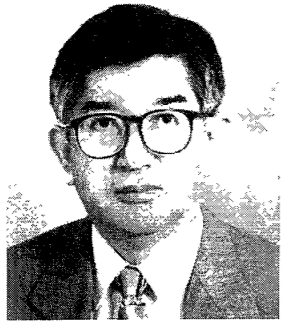


올해로 20년째, 김씨 아줌마는 요즘도 새벽3시면 수산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생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날 팔다 남은 생선은 다음날 팔지 않는다는 자신과의 약속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이 동네에서 몇십년째 사십니다만 다른 생선가게에 가본 적이 없답니다. 김씨 아줌마네 생선은 신선하다는 믿음, 바로 그것이 20년 단골의 이유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큰 믿음은 시작됩니다. 쌓음은 그동안 쌓아온 믿음으로 소중히 가꾸 자신과의 약속, 고객과의 약속,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최고를 만듭니다 **S 상용**

# 광주민주항쟁과 2단계 민주화



최 장 집  
고려대 정외과 교수

## 시사논단

### 5.18의 제자리 매듭을 위하여

림축을 설정했던 역사적 계기였다. 또한 그것은 권위주의국기에 반하는 운동으로서의 시민사회가 부활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민주항쟁은 유산체제 뿐만 아니라 5공, 그리고 나아가 모든 권위주의에 대한 진정한 안티테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화란 광주민주항쟁의 정신과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라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80년의 광주항쟁이 민주화를 위한 첫 번째 계기였다면, 87년 6월 항쟁은 이제 그 두 번째 계기였다. 광주항쟁의 의미는 6월항쟁에서 피사되었다. 광주항쟁은 6월항쟁에 의한 무혈민주화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렇게 해서 광주항쟁은 6월 민주항쟁의 연속선상에 있으나 그 의미는 많은 변명을 견뎌왔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광주항쟁의 보편적 성격은 국지화, 지역화, 호남문제의 호남화를 통하여 그 위상이 점차 약화되어 왔다. 광주항쟁이 광주라는 특정지역에서의 민주화 투쟁인 듯이, 그럼으로 하나의 특별한 지역적 사태인 듯이 인식된다면 그것은 심대한 의미 축소이며 왜곡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곧 한국민주주의가 커다란 제약 속에서 짊어지는 민주주의로 제대로 진전되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반영한다.

우선 민주주의로 제대로 진전되고 있지 못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의미 축소와 왜곡은 5공경정권에서 이루어졌다. 광주민주항쟁이 올바른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급진적 변혁이론과 운동 논리를 표방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혁이라는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넓어 가는 것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민주항쟁으로서의 광주항쟁이 갖는 본래의 성격은 빠지고 모든 급진적인 것을 광주와 호남에 연결시킨다면 그것은 커다란 이데올로기적 왜곡이 아닐 수 없다. 80년대를 통하여 그리고 현재에도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광주항쟁의 의미가 국지화되는 일이 문명정부로부터 자립하는 김영삼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우리가 김영삼정부의 경험을 통하여 보게되는 것은, 광주항쟁의 참다운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호남문제를 우회하고서는 민주화 개혁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호남남부의 현정부가 주도했던 개혁의 사회적 기반은 한국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불가분의 관계로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한 민주주의의 정착과 함께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사회의 소외계층들을 통합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광주민주항쟁을 제자리매듭 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진전될 수 없다. 그러나 광주항쟁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한국사회의 광범위하게 깔려있는 반호남주의와 그로 인한 호남문제가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호남문제의 해결은 한국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한 민주주의의 정착과 함께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사회의 소외계층들을 통합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불투명한 정치자금 뿌리 뽑아야 한다

## 법제도 정비·국민 의식화 선행돼야

대통령선거자금 내역의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또다시 소용돌이치고 있다. 어제보면 간단하고도 명료한 문제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 양 포장해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선자금의 출처·사용처·규모·책임자 등에 대한 점 의혹 없이 낱말이 공개되어야 하고 여기에 야당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오늘과 같이 부정과 부패로 만신창이가 된다는 바로 정치자금의 동원방식과 운용과정이다. 한 번도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은데 그 뿌리가 있다. 박정희 정권에는 각종 공적사업과 차관 도입과정에서 비자금의 총액의 10%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 비자금은 선공제되고 별도의 통장에서 관리되는데 관계자들의 공통된 중언이다. 전두환 정권 때는 소수기업에 의해 활동하는 방식

이었다는 게 최근의 '통치자금' 논란 과정에서 일부 드러난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전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박정희의 잔재와 군사정권의 후계자들이 답답하여 출범한 김영삼정권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들 세력으로 부터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기업의 속성에 비해 당시만 해도 가장 접근가능성이 높은 김영삼 후보에게 자금을 대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믿는 이는 많지 않다. 규모와 출연 기업수의 많고 적음이 있겠지만 김대중후보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거에 얼마를 썼고 얼마를 남겼는가에 대해 정치권은 이번만 국민들에게 전모를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박정희는 정치자금 측면에서 보면 '박정희 재벌'을 영속화하려는 음모를 꾸미다 심복의 저격

을 받고 쓰러졌다. 우리는 전두환씨가 백담사로 떠나기전 생방송된 기자회견에서 '쓰고 남은 돈이 연회동 집과 3백억원대의 운용하는 새빨간 거짓을 접한 바 있다. 노태우씨는 전두환정권에 뒤떨어지지 않았고 최소 5천억원의 비자금을 주무른 것으로 재판과정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이제 돈은 김영삼대통령에게 넘어왔다. 김대통령은 그해로 역사에 남을 문민정부의 기틀을 세운 첫 지도자라는 평가를 차지하고 여생을 불행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민정부의 출범에 소요된 돈을 솔직히 밝혀야 한다. 김대중 김종필 두총재도 YS 대선자금의 공개여부를 정치적 거래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두총재 또한 자신들의 대선자금 운용에 대한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YS는 DJ든 JP든 그 누구도 대선자금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대해서는

비판적 전망이 우세하게 현실이다. 그것은 이 사회를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이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이른바 '가진자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진자란 대다수의 재벌, 일부 고급공무원 그리고 다수의 언론을 지칭한다. 권력과 금력 그리고 정보를 거머쥔 이들이야말로 현정권과 그들망의 향연을 쥐고 있는 공생관계에 있고 먹고살을 먹은자라고 높은 판을 제공한 부정부패의 방조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못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하나. 일단 단지고 외면하고 말 것인가. 그대서는 결코 안된다. 그대도 같은 것을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타개하는 데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한 줌도 안되는 가진자들이 더 이상의 오만을 부리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로는 회초리를 갖추는 일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실천하지 못하는 구호가 패배했다. 법 제도의 정비와 함께 국민적 힘을 모을 필요가 절실하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정기구를 세운 부패척결에 성공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대선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투명에 대해 급한대로 특별법제도의 도입 시행도 적극 검토해

야할 것이다. 정치자금집행제도 돈 정치를 극복하는 좋은 대안 가운데 하나이다.

다른 한 갈래는 정신적 의식적 측면이다. 출신지, 학벌, 동향 이런 봉건적 잔재를 하루빨리 청산하는 일야말로 우리 자신들이 떠맡아야 할 몫이다. 이권을 다투는 패거리집단에서 서둘러 빠져나오는 일, 부패의 현장을 고발하는 일, 부정부의 실상을 깨닫는 일도 사회의 정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전제는 거짓이 아닌 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고 거짓을 회개할 줄 알며, 양심선언을 할 수 있다는 점 아닐까.

양심선언이란 자신이 잘한 것뿐 아니라 잘못한 것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인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결단이다. 사실 양심을 드러내놓는 일을 도덕적인 것이 되려는 고상한 목적 이전에 한반도 공동체가 지구촌의 주요 일원으로의 통합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다름없는 것이다.

양대서  
(전 경실련 사무국장)

## 사설

### 미래동국을 예감한다

동국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5월이 아닐까 싶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여 동양 곳곳에는 오색찬란한 연등이 수를 놓고, 개교기념의 행사가 학내 곳곳에서 일구어 지니 이를 바라보는 모든이의 마음은 흐뭇하기 짝이없다.

오늘로 아흔 한번째의 성상을 일구어낸 동국은 다시한번 미래를 다짐하며 21세기를 대비하고 있다. 1900년 초 개교 당시 세계열강들이 개화를 빌미로 한반도에 침투하기 시작해 국운은 쇠퇴하고 외세자본이 판치던 종전 동화의 상황에서도, 민족의 선각자들은 외세자본이 아닌 순수 민족자본을 모아 명진학교를 설립했으나 바로 이것이 동국대학교의 모태가 된 것이다. 지난 97년의 역사동안 세번이나 폐교의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격동과 혼란의 시대에는 불의를 떨치고 일어섰으니 오늘 개교기념을 맞아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있는 지금, 나라의 모습은 97년전 개교당시보다 나을 게 없다. 나라는 안락으로 시끄럽고, 민심은 흥행하며, 위정자들은 이권다툼에 눈이 멀었다. 하늘종양된 '세계화'의 외침속에 외세의 것이 불발듯 밀려 들어와 우리의 것은 오간데 없고, 무엇이 좋고 그른지 어느것을 선택해야 할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다.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이다. 각 대학들 역시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경쟁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03년에는 대학입학정원과 수험생의 비율이 같아지니 선택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본교 역시 팔방만 끼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다. 서양의 자본논리가 쇠퇴하고 세계 석학들이 눈을 돌려 동양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에 따라 '세계의 중심은 동양으로 이동한다'는 설에 힘이 실리고 실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불교종단대학으로서의 동국은 여기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물론 오랜 역사에서 가인한 인연과 나태의 모습, 침체된 분위기가 한때 동국을 움추리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어느때보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쳐 청년의 기백을 닮았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일선의 제3캠퍼스가 설계작업에 들어가 내년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고, 서울캠퍼스는 외곽, 내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다시 한번 용비를 예감하고 있으니, 이제 학내 주체가 손을 맞잡고 합쳐져 전진하는 일만이 남았다. 과거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불신했던 모습을 벗어던지고 거대한 동국발전의 흐름속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자, 이제 동국의 새 역사는 시작되었다. 가슴을 열고 새역사를 맞이하자. 미래 동국은 그대의 것일지니.

## 동국만평



윤수 II (검찰 & 안기부)

## 창립 55주년

美백악관과 피카소 박물관,  
달리 미술관, 만렐라 대통령 집무실을  
장식했던 동남벽지-  
그 품격의 벽지를 직접 경험하십시오



**동남벽지**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14-3 TEL : (02)548-6237 FAX : (02)514-7847  
 ● 곁공장 :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27-8 TEL : (0345)494-6231 FAX : (0345)494-6287  
 ● 영업소 : 남서울(02)599-3211/강남(02)546-0550/강동(02)415-6263/강북(02)999-1472/동부(02)3436-0408  
 서울(02)618-0721/인천(032)863-3527/수원(033)217-3301/안산(0345)416-6007/고양(034)968-2121  
 안양(0343)54-0640/부천(032)666-5128/남부(0342)781-0294/부산(051)853-1225/대구(053)424-5477  
 포항(0542)82-1607/광주(062)225-0110/전주(063)252-7559/울산(052)67-0346/경남(0551)64-8555  
 서부경남(0551)747-8801/충북(043)66-6566/제주(064)33-9471/대전(042)673-4932  
 원주(0371)762-8756/대구원대(053)958-0823

- 앙상블 I (Ensemble I)**  
실크 이미테이션벽지로 최선각과 동조방식으로 생산되는 비닐실크벽지
- 환타지 II (Fantasy II)**  
천연섬유를 사용한 최고급 섬유벽지 동남만의 기술로 생산되는 섬유나염벽지(기본재고 본사보유)
- 심포니 I (Symphony I)**  
초경, 지사, 섬유벽지 등 천연소재의 제품위주로 선진국에서도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은 벽지 (기본재고 본사소유)
- 콘체르토 (Concerto)**  
신 DESIGN 개념의 비닐실크벽지 이태리 EMILIANA PARATI, 독일의 SACHS DESIGN, 미국의 COMO DESIGN과 디자인 제휴 제품임
- 모드 (Mode)**  
합지종이벽지, 이태리 EMILIANA PARATI와 디자인 제휴. 최첨단의 합지벽지
- 앤티크페일 (Antique Feel)**  
선진유럽에서 가장 인기있는 품목만을 엄선 수록한 비닐 실크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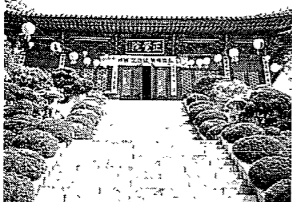


# 혼돈의 시대와 불교

## 개교 91주년 기념 부처님오신날 특집호

### 동국의 명소

정각원



건축이념의 구현을 위해 1977년 승정전을 복원하여 학교 법당으로 개원했다. 원래 경회궁의 정전으로서 조선 후기 건축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건물로 서울시 지방유형문화재 제 20호로 지정되어 있다.

교직원과 학생의 심신수련의 도량으로 각종 법회와 불교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 동악선생시단



조선 선조때의 대문장가였으며 후일 영조 임금의 차를 받기도 한 동악 이안눌의 문명을 기리기 위해 '동악선생시단'을 새겨 학림 관 옆에 세워졌다. 계산고시학사를 신축하며 유적의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1987년 준공하였다.

### 학술문화관



제 15회 서울시 우수 건축물 심사에서 은상을 수상한 건물이다. 개교 90주년을 기념하고 1백주년을 앞둔 동국의 동국대학을 자랑하는 건물로 꼽힌다.

### 안중근 비



안중근의사가 순국하기 한달전에 여순 감옥에서 쓴 '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를 새긴 비석으로 평민관 오른쪽 언덕 배기에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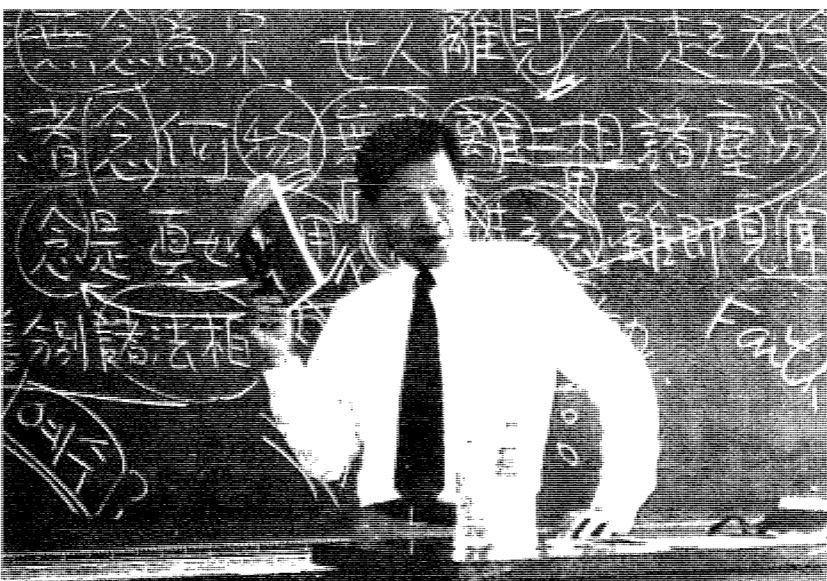
혼돈의 시대에 대한 정의와 그 대안을 박성배 석좌교수에게 글로 받으려던 기자는 하와이로 세 번, 한국의 연락처로 네 번 연락을 했고 그리고 지난 6일 그가 귀국하던 공항에서 두시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이 어긋나게 되었다. 결국 기자는 글을 받지 못했고, 사흘후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LA로 돌아가려는 그를 공항까지 따라가 끝대신 말을 담아왔다. <편집자>

현대는 혼돈의 시대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치관을 상실했고 방향감각 또한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진정 무엇이 더 좋은 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론가 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 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모두들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병. 이것은 오늘이 혼돈의 시대이고, 일종의 시대임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바빠 돌아다니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하는가? 사람은 모두 다 다르다. 불교적으로 말을 해서 각자는 모두 다른 카르마(業)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마치 한 벽돌장처럼 똑같은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또한 진·노·김 3대통령의 독직사건이 사회를 흔들어주고 있다. 이런일이 아예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채 역사속에 묻히는 것보다는 훨씬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진·현직 대통령의 독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도 당사자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철저한 분석이란 비단 정치, 경제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철학적 종교적 분석까지를 포함하는 제대로 된 분석을 말한다. 분석이 없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다. 특히 청와대는 일종의 우범지대이다. 우리를 서민이냐 교통경찰이 무서워 신호등 하나도 위반하지 못하지만 청와대에 사는 사람들이야 모두가 자기 아래로 내려다 보이니 무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그것은 정치, 경제면에 제도적 결함과 법의 미비에 있었지만, 그보다는 전국민적인 정서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지금은 우리들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 사회는 온통 돈 밖에 모른다. 언제 어디서나 돈이 제일 큰 가치로 군림한다. 진·노·김의 독직사건도 이러한 가치의 진도에 있다. 예술가도 종교인도 예외는 아니다. 어떤 성스러운 것도 결국 파헤쳐 놓고 보면 그 속에 돈이 공권적인 가치인양 도사리고 앉아있다. 현대를 휩쓸고

### ◇ 혼돈의 시대 그 정의와 대안

## 현대는 외세 범람속에 방향감각 잃은 혼돈의 시대 나를 알고 현실직시하는 한국학·불교통해 위기를 기회 삼아야



사진은 본교 박성배 석좌교수가 강의하는 모습.

있는 혼돈의 모습은 자기가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오직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명을 위축당하고 뒤물리고 있다. 그렇다던가 가만히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본다. 마치 난파당한 배를 연상케하는 이상향. 전지는 캄캄하고 폭풍과 함께 폭우는 계속 쏟아지며 우리들이 타고 있는 배는 방향감각을 잃고 중심을 못 잡은채 뒤물리기 직전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태적인 고난은 개별적인 사고와 다르다. 사고가 개인적인 것이라 하면 고난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데 특성이 있다. 고난은 민족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우리 민족 모두

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고난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나를 모르면서, 우리를 모르면서는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다. 우리의 현실 속에는 나만이 들어가 있지 않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우리 조상이 들어와 있고 후손들도 들어와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에는 과거도 들어와 있고 미래도 들어와 있다는 말이다. 또한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도록 강요하는 외세가 우리의 현실속에 들어와 있다. 결국 외세라는 폭풍에 우리는 난파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외세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 혹은 총체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연구하는 것이 한국학이다. 그리고 이는 상이탈적인 학문의 한 분과가 아니라 민족의 고난을 극복한다고 하는 하나의 실존적인 요청이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담원학이다.

우리 민족이 고난에 처해있을 때 불교는 항상 민족과 함께 고난을 나누었으며 그 고난의 극복에 앞장섰었다. 신라와 원효가 전개한 평화의 이론, 고려의 지눌이 전개했던 공존의 이론, 그리고 동고건이 침략했을 때 대장정을 편찬해

민족정신 고양, 조선시대 서산과 사명이 보여준 구국 구족의 과제행위 또 일제시대의 만해 한운이 보여준 민족정신 동등이 모두 좋은 예라 말할 수 있겠다. 불교는 우리를 알고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길을 분명히 하는 데에 역활이 지대했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학의 중요한 한 분야는 불교학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교학은 그 밑바탕에 항상 민족을 걱정하고 민족을 보살피는 보살정신이 원동력으로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시대이다. 중생에 대한 이해가 시대에 따라 다르고 방식 또한 다르지 않았는가.

인터넷은 화염사상의 일즉일체를 연상케 해준다. 인터넷 세계가 화염세계라는 말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인터넷이 그대로 화염은 아니다. 마치 다른가하면 인터넷은 물질세계이다. 아무리 신비로워도 물질이다. 그러나 화염은 그 속에 무어와 무상을 깔고 있는 차원없는 개천의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원리의 구속성이 없고, 교조주의가 없다. 오늘날 가치를 상실하고 방향감각이 없는 고통받는 민족에게 인터넷세계에 살면서 화염적 불교의 보살정은 무엇이라고 할까? 알맞은 답을 찾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이것은 우리시대의 화두이다. 화두는 스스로 풀어야 하는 것. 고통을 당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끝날때 해결해야 그것이 화두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고 혼돈을 극복하는 새바람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박성배 교수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 화두를 던졌고, 태평양을 건너가기 직전 공항에서 기자와의 수필에 순수 글을 담아주었다. 글은 다음과 같다.

혼돈은 법문이다. 혼돈이 아니고서 창조는 없다. 잘못된 가치체계를 뜯어내 부수기 위해 모두 화제가 버리는 것이 혼돈이다.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잘못된줄 모르고 그래서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사회가, 세상이 무너질것과 화제어버림을 우리는 혼돈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돈은 시대의 진단이요 처방이요 치유이다. 우리는 이런 혼돈이 주는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정리:김기영기자>

### ◇ 불교적 관점에서 본 인간복제

## 생명복제, 무아어린 현상에 집착한 업의 결과 타인 생명 이용하려는 욕망...불행한 결과 초래

권기종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과학기술의 발달은 드디어 인간복제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이 인간복제 기술은 윤리적으로 합당한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든가 종교적으로 각기 종교의 교리에 위배되는가 위배되지 않는가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실을 놓고 그 기능적인 측면과 연기적 측면의 서로 다른 시각에서 찬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으로서 인간복제가 인간의 삶에 유용한 일인가 유용하지 않은 일인가 하는 입장에서 그 답을 찾으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해결은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생명의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생명의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는 발달된 대승불교의 입장보다는 근본불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근본불교의 교설이 '부다의' '생각이 집착한 견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교의 생명관은 첫째, 불교는 생명의 기원을 밝히거나 생명의 근원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찾았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혼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다. (중요한 전유경)에서는 영혼과 육체의 관계와 사후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무기(無記)'하고 있다. 무기는 일종의 침묵과 같은 것으로 가부를 판단하지 않는 대답이다.

특히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되어질 수 있는 인식의 범주를 벗어난 문제로서 그 어떠한 대답도 의욕만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내생이 있다는 상경(常經)이나 내생이 없다는 단경(斷經)을 떠나 중도(中道)의 입장을 취할 것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가 둘인가에 대해서도 들어라든가 하나라는 생각은 모두가 망념(妄念)에 불과한 것으로,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편견이라고 본 것이다. 그것은 영혼이란 별개의 존재가 있을 수 없으며, 또 의식하지 않는 육체도 인간의 실존으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생각은 생명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중요한 대구지리경)에서는 의식은 수명에 의지해 있고 수명은 체온에 의지해 있으므로 이것은 구별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둘째,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 생명을 이해하려는 것은 무지(無知)이다. 불교의 입장은 영혼이나 육신은 실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무명(無明)에 의한 허구일 뿐이다. 영혼은 불교의 식(識, vijñāna)에 해당되는 말로서 영혼

### ◇ 선의 깨달음과 이성의 자각

## 불교의 깨달음은 이성자각이 아닌 전인자각 동·서양이 상보적 조화 이룰때 금상첨화

김용정

본교 명예교수

선(禪)이란 무엇인가. 선(禪)이라는 한어는 본래 산스크리트어 dhyāna의 속어형인 jhāna 또는 jhāna의 이루어져 알려져 있다. 그것을 의역한 것이 정(定) 또는 정(靜)이며 그 정을 선(禪)과 결합해서 선정(禪定)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인도에서는 불교가 성립하기 이전부터 dhyāna라는 말이 있었으며 그 동의어인 삼매는 우파니샤드 문헌에도 나타나 있다. dhyāna는 본래 속고하(śūnyatā)라는 통사에서 유래된 명사로서 정신통일,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불교사상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선(禪)은 자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왔다. 즉 선(禪)은 결코 불교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통일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 다시 말해서 자제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 물론 그것은 자제를 얻음으로써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선종이 성립한 이후에는 자제보다도 선(禪)을 더욱 중요시하고 그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이 된 만큼 선수가 바뀌게 되었다. 중국 8세기의 선사 마하연의 '정리결(正理決)'속에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일체 중생은 무량겁이래 삼독(三毒)인, 무지(無明), 탐(貪), 미(瞋)를 떠나지 못하여 생사유량함으로써 해탈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중생이 이것들을 떠나면 해탈을 얻고 성불한다"는 것이다. 마하연의 주장은 중생이 번뇌, 탐상, 망상을 떠나면 곧 해탈 성불한다는 것이다. 과연 망상을 떠나는 것만으로 해탈이 가능한 것인가? 망상 때문에 윤회정생을 하는데 망상을 떠나는 것이 곧 해탈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하연은 일체중생이 본래 불성(佛性)을 갖고 있으나 대양이 구름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망상이 불성을 가려 나타나지 않지만 만일 수행을 하여 망상이 일어나지 않아 일체의 망상을 떠나면 본유의 진성과 일체의 지혜가 자연히 나타난다고 하여 망상을 떠났으므로 불성이 현현하여 해탈이 성취된다고 설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간은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망상의 결집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지혜 즉 불성이 나타나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8세기에 카발라라라는 '사무에의 혼돈(794년)'이라 하는 티베트에서 일어났던 불교사상상 미증유의 사상적 논쟁에 있어서 마하연과 대결하여 바른 분별지를 무분별지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내세워 자기 주장을 논박했다. 카발라라라는 바른 개별관찰을 버리게 되면

지혜까지도 버리게 된다고 말하고 따라서 바른 개별관찰 없이는 바른 분별지를 얻을 수 없으며 번뇌라고 하는 장애도 단절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결론은 정사유(正思惟) 없이는 정각(正覺)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만일 마하연이 상(想)을 떠나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버리지 못한 사유를 떠나야 한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돈오돈수(頓悟漸修)나 돈오점수(頓悟漸修)니 하여 논쟁의 소지를 그대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만일 바른 분별지를 사상의 순수자이인 이성과 유사하게 생각한다면 그 이성은 불교의 깨달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서양철학에 있어서 이성은 사유의 주체로서 대상인식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자기 인식의 원인을 지각하는 자발적 이성이었다. 서양의 근대과학이 과학으로 성립한 것도 이성에 근거한 것이고 칸트적인 과학윤리의 기초가 된 것도 이성이었다.

이성의 철학자 칸트는 '나는 신앙에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지식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양의 불교철학자 마더는 '불교와 칸트가 현실세계를 현상계, 즉 마음에 의해 반영된 가상의 세계로 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면이 있다'고 하였다.

마더는 불교의 집론과 칸트의 체계는 다같이 철학에 대한 철학이라고 말하고 그 철학의 작업은 그 철학적 비판에 대한 반성적 이해라고 하였다. 그는 이 반성은 곧 자각이며 이 반성은 우리가 깨달았다고 믿었던 것이 허위임을 깨닫게 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불교는 스스로 제어하고, 조정하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참선하고, 공부하고, 명상하여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스스로 자신을 구제하는 종교이다. 불교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두뇌도 아니고, 또한 그의 신체도 아닌, 부분도 아니며,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전인(全人)이 자각하는 것이다. 또한 그가 그것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사고로써 파악하는, 자기에 떨어져 있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것 즉 뜻이나 동불이나 사물을 그것의 전체적 실상에 있어서 자각하는 것이다'

이성의 순수자이도 자기 중심적인 일상의 자아 입장을 초월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무아(無我)의 방향으로 초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아 그 자체를 절대로 부정해 버린 탈자적인 무아로 집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아 자신이 내면으로 돌아와 일성적 자아를 초월한 그 근원을 자각하는 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순수하게 자각된 자아자신이다.

여기에 불교 무아의 깨달음과 서양 이성의 자각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이 서로 상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을 것이다.



# 불교의 전생과 윤회

개교 91주년 기념  
부처님오신날 특집호

## 동국의 명소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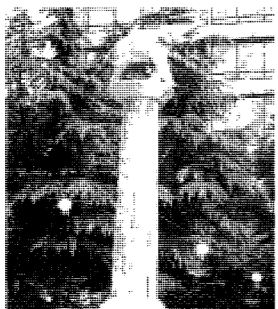
국내 유일의 종합 불교박물관으로 1978년 준공되어 80년 개축하였다. 지정문화재 9점과 각종 유물 및 자료3천여점을 소장하고 있어 동국인에게 산 역사 교육의 장으로 애용되고 있다.

## 만해시비



본교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시인인 만해 한용운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87년 세워진 시비는 만해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본관앞에 세워져 있다.

## 코끼리상



본교의 상징 동물인 코끼리의 지혜와 인내, 용맹정진의 뜻을 기리기 위해 70년 졸업생들이 71년 5월 건립했다. 기단이 화강암 팔각형이고 화강암 6각 주위에 청동 주조로 이루어졌다.

## 사상·원칙없는 '전생 신드롬'

불교이론의 올바른 이해 선행돼야

윤 호 진  
불교문화대 불교학부 교수

요즘을 감자기 사람들의 전생에 관한 관심이 어느때 보기도 높아졌다. 전생 이야기들이 책으로 영화로 TV의 드라마로, 심지어 대중가요와 만화에서까지 다루어지고 있다. 작년에 상연되었던, 전생을 주제로 한 어떤 영화는 관객들의 기록에 도전했고,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정신과 의사들도 한류하고 있다. 그들은 최면요법으로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다가 환자들이 현생을 넘어 전생의 일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전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쓴 전생에 관한 책들도 계속해서 많이 팔리고 있다.

전생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데도 왜 요즘에 와서 새삼스럽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가. 서양사람들이 만든 영화나 그들이 쓴 저술에 자극을 받은 때문인가, 아니면 어느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현실 사회의 불안감의 반영인가. 전생의 존재를 중심사상의 하나로 믿고 있는 불교인들은 이처럼 갑자기 전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어리둥절해지기까지 한다.

불교에서는 그 시작에서부터 전생이 있다는 것을 믿어 왔고, 전생에 대해 정밀한 이론도 갖추고 있다. 전생문제는 문화적 차이의 주체로나 호기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할 것도 없다. 불교인들에게는 그것은 인생과 자연과 세계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것들을 푸는 열쇠였다.

전생사상은 윤회(輪廻, samsara)라는 이름으로 불교와 더불어 아주 오래 전부터 동양 사상의 큰 부분을 이루고 있다. 부처님도 사실은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 수도했고, 그의 모든 가르침은 윤회 문제를 푸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인도 바깥으로 전파되면서 윤회 사상은 전 동양에 알려져, 일찍부터 동양 사상과 문화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윤회이론은 불교인들에게는 온갖 문제에 대해 의문을 풀어 준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풀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윤회이론에 의하면 그 답은 간단하고도 명료하다. "전생을 살다가 현생으로 왔고, 현생을 살다가 후생으로 간다. 그리고 후생에서 죽어 다시 현생으로 온다" 전생과 현생과 후생은 한없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되풀이된다.

인간불평등의 문제도 그리고 자연의 신비문제도 윤회이론으로 설명이 된다.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며, 어떤 사람은 병이 많을까, 왜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일찍 죽을까, 왜 어떤 사람은 부자집 아들로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가, 왜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못생겼을까, 오 리 새끼는 어떻게 해서 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서 해엄을 칠 줄 아는가. 개구리는 뱀에게 한번도 잡아 먹혀 본 일이 없는데 뱀만 보면 왜 쫓겨다니는가, 이와 같은 의문들은 모두 전생을 전제하면 간단하게 풀린다. 전생의 결과가 현생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전생의 결과는 현재의 생애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삶의 결과는 다음 생애를 결정 짓는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와 내가 왜 이렇게 만나 사람에게 빠지게 되었는가. 나는 너에게 특별히 미워할 것을 하지 않았는데도 너는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가. 부부끼리의 관계, 부모자식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전생의 관계가 현재의 생애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곤경에 처했을 때 종종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라고 탄탄을 한다. 이것도 전생을 전제로 한 하나의 설명이다. 윤회사상에서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전생사상, 즉 윤회이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의 형성과 우주 질서의 문제까지도 답을 준다.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가. 그 속에 사는 중생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어떤 지역은 메마르고 거친데, 어떤 국토는 풍요로운가. 자연과 우주의 문제도,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의 전생과 후생의 문제도 윤회이론으로 풀다. 불교의 세계론 또는 우주론은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윤회 사상은 불교의 핵심이다.

요즘을 책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전생이야기들은 어떤 원칙도, 사상도 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 작가들은 각자의 상상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정신과 의사가 이 말하고 있는 전생 이야기도 불교의 전생이론, 즉 윤회이론과는 거리가 멀다. 불교 쪽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처럼 전생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인지 하지만, 그러나 자칫 이와 같은 드라마나 소설이나 저자들이 전생, 또는 윤회사상에 대해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게 된다. 전생사상이 순전히 환상적이고 허무맹랑한 것으로, 단순히 공상소설의 주제로, 또는 일시적인 호기심의 만족이나 심심풀이의 이야기 수준에만 머물러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생과 사는 무한한 수레바퀴'

과거·현재·미래, 긴밀한 연관성으로 설명

김 선 근  
불교대 인도철학과 교수

인도인들은 인간의 삶을 윤회하는 삶이라고 믿었다. 인도 사상사에서 윤회사상이 처음 발생한 때는 브라흐마나 시대(B.C. 1000-800)의 말기나, 이 사상이 인도오화설(道五次說)로 기본적인 체계가 명료한 형태로 성립된 것은 초기 우파니샤드 시대(B.C. 800-500)에 이르러서이고, 이것이 불교에서 활짝 꽃피었다.

윤회(samsara)란, 인간의 주체 혹은 영혼이 죽은 후에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생사를 반복함을 뜻한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영원한 것으로 과거에 지은 업(業)에 따라 태어날까 마다 형태가 다른 것으로 태어나는 것을 윤회(輪廻轉生)이라 한다. 금생(今生)에 축(業)이 움직이고 업(業)을 지어서 그 다음 고통(苦痛)을 받는 것이니, 이 축·업·고의 인과관계는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시작도 끝도 없는 수레바퀴 모양으로 연속된다고 해서 윤회라고 했다.

윤회하는 데는 주체와 장소가 있고 전생하는 데는 전생할 단계가 있다. 불교에서는 윤회하는 장소를 육계(欲界)와 색계(色界) 그리고 무색계(無色界), 삼계로 구분했다.

육계(kama-dhatu)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6욕권이 사는 세계의 총칭이다. 이런 세계는 남녀의 성별이 있고 식욕, 수면욕, 성욕이 있으므로 육계라 했다. 육계의 중생들은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이 일으키는 오욕에 이끌리어 생활하므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세계다. 그런 이유로 물질의 쟁탈에 의해 탐욕이나 분노가 있고 싸움이 일어나는 세계이다.

색계(Rupa-dhatu)는 육계의 위에 있으며 오욕이 없어서 좀 자유롭기는 하나 색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므로 색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세계이다. 색계는 성욕, 식욕 등의 탐욕은 여의었으나, 이치 무색계와 같이 순정신적인 것은 되지 못한 색신에 얽매인 세계다. 선정(禪定)의 알고, 깊고, 거칠고, 묘함에 의하여 크게 나누어 4선(禪)으로 나누고, 다시 18천(天)으로 나눈다. 색계에 있는 18천은 초산천(初禪天)의 3천(天), 2산천의 3천, 3산천의 3천, 4산천의 9천이다.

무색계(Arupa-dhatu)는 색계 위에 있어 신체나 장소가 없는 세계로서 순정신적 존재인 세계이다. 이 세계에는 온갖 형색은 없고 수(受)·상(想)·행(行)·식(識)의 4온(蘊)만 있다고 한다. 이것에는 공무변처(空無變處)·식무변처(識無變處)·무소유처(無所有處)·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의 4천이 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은 각자의 업에 따

라 이 삼계를 윤회하는 무대로 삼고 생존한다고 한다.

다음에 전생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금생에는 사람이었지만 다음 생애는 무엇으로 태어나는가? 이 전생하는 단계는 여섯가지로 나누는데, 지옥(naraka), 마귀(pretta), 축생(tiryak), 아수라(asura), 인간(manusya), 천도(deva)의 육도이다. 이 여섯 갈래를 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 각기 다른 것을 표현한 것이다. 중생의 태어남에는 난생(卵生), 태생(胎生), 습생(濕生), 화생(化生)이라는 '생'의 구별이 있다. 조류 등은 난생, 동물은 태생, 벌레류 등은 습생, 천계는 화생이다. '중생이 여섯 갈래로 윤회하면서 전생하는데, 어느 도로 갈 것인가는 자기의 의지자유에 달린 것이다.

윤회의 주체로서의 자와 그것이 생존하는 장소로서의 세계에 관하여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62종의 견해가 있었다고 범망경(梵網經)에 전해지고 있다. 불전에서는 당시의 세계관을 3종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모든 것은 신의(神體)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보는 '자재신화설(自在神化說)'과 일체는 과거의 업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숙명론'과 일체는 우연의 소산이라고 보는 '우연론'이 그것이다. 부처님은 이들 세가지 견해를 인간의 의지자유나 인간의 노력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배척하고 연기설을 주장하셨다. 우리의 윤회생존은 무명과 번뇌에 의해 습관적 행위를 일으키며 그 힘으로서 생사의 고통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도식화한 것이 십이지도 구상된 연기설이다. 십이지연기설에 의할 것 같으면 전생과 내생에 있어서 한 개인의 인격적 연속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식(識, vijñāna)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조건적으로 성립되며 항상 변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일 뿐이며 영구불변의 영혼이나 자아는 아니다. 그것은 변하는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금생이나 혹은 금생에서 내세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라 한다. 이 십이지연기설(十二支緣起說)은 전통적으로 삼세(三世, 현재, 미래)에 걸친 인간의 유전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윤회가 업보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로서 대승불교에서는 무아설을 지키면서도 윤회의 주체로서 알라야식(alaya-vijñāna)이라는 존재를 설정하여 인격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업보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사상들을 철학적으로 발전시켜 이론화한 사람들은 유가행파(yogachara)라 하고, 그 대표적인 철학자들은 마륜(Maitreyanatha, 270-350 A.D) 무착(Asanga, 310-390 A.D) 세친(Vasubandhu, 320-400 A.D)이다. 유식설은 초기 불교가 지녔던 난제, 즉 아뜨만(atman)이 없는데 무엇이 어떻게 업(業)을 담지하여 윤회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서 밝혀낸 이론이었다. 유식설의 공작은 우리의 현실의 존재 형식이 유래하는 이유와 그 실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 요체로서 식(識)의 구조를 분석한 점에 있다.

요즘 세대들은 삼세의 인과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인과가 없고 윤회가 없다면 사람마다 다른 재능과 성격과 건강, 그리고 도덕성을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윤회설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의 운명을 과거의 업의 결과로서 보게 하고, 이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운명의 주체인 업력을 실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통찰력을 갖게 하는 사상이다.



**믿을 수 있는 친구 - 삼성**

### 멀티미디어의 삼성전자

## 21세기를 정복하는 힘은 무엇인가?



**알렉산더 Alexander (B.C. 365-323)**  
20세의 약관으로 세계정복의 길에 올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한 정복대왕.  
그의 힘은 막강한 군사력과 뛰어난 통솔력이었다.



**징기스칸 Jenghis Khan (1167-1227)**  
몽골족의 위대한 변지에서 태어나 13세기 후반의 유라시아를 통일, 세계를 손에 넣은 정복대왕.  
그의 힘은 유목 기마군단의 상상할 수 없는 기동력이었다.



**나폴레옹 Napoleon (1769-1821)**  
저명한 프랑스의 위대한 정치인으로 유럽 전역을 장악한 정복대왕. 현 시대를 개척한 그의 힘은 앞선 구성력과 행동력, 그리고 혁명적 내재성이었다.

?

**21세기를 정복하는 힘은 바로 정보력·정보에 앞서는 자가 미래의 정복자!**  
캠퍼스 정보화로 미래를 앞서간다.

**캠퍼스 정보화는 21세기 한국의 경쟁력! 삼성전자 C&C가 활짝 열어드립니다.**

남보다 앞선 정보력으로 키워가는 캠퍼스 경쟁력— 바로 미래의 백년을 장악할 국가 경쟁력의 초석입니다. 지금, 캠퍼스 정보화시대를 앞당기는 삼성전자 C&C의 정보통신제품으로 21세기 지구촌의 주역이 되십시오.

**앞서가는 제품력**

- No.1 컴퓨터, 삼성 매직스테이션
- 캠퍼스형 노트북PC 센스 아카데미
- 통합문서 관리 소프트웨어 훈민정음
- 한국지형에 강한 휴대폰 애니콜 디지털

**튼튼한 지원 시스템**

컴퓨터 무료교육과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지원 등 캠퍼스에 정보파워를 공급하는 삼성전자 C&C 정보화 솔루션 - 효과적으로 캠퍼스정보화를 뒷받침합니다.

**캠퍼스 경쟁력, 삼성전자 C&C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가족



**삼성전자**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ec.co.kr>  
● PC통신(유니텔, 천리안, 하이텔, 나무누리) GO S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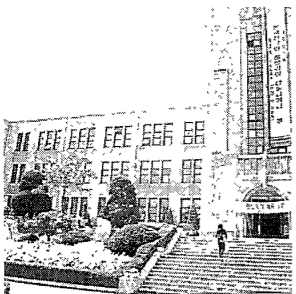


# 송석구 총장에게 듣는다

### 개교 91주년 기념 부처님오신날 특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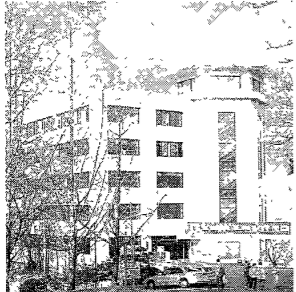
## 동국의 명소

명진관



1956년 준공 당시 한국 석조건축상을 수상한 건물로 그 규모와 견고성, 설계와 미학의 매력이 우수하다는 평을 들었다. 동국을 대표하는 건물로 이름이 높다.

학생회관



1971년 준공된 이래 학생회 및 동아리, 동대언론사 등이 모여있다.

사제 동행비



1984년 12월 학림관 앞 동산에 세워졌다. '사제의 도리를 존중하고 참된 교육의 길을 같이하고자 사범대학의 교수와 학생이 뜻을 모아 이 비를 세우다'라는 비문처럼 참된 교육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상징물이다.

개교 91주년을 맞이해 송석구 총장으로부터 교육개혁, 학부제, 제3캠퍼스 건립 등 앞으로의 동국미래에 대해 물어보았다. <편집자>

개교 1백주년을 맞는 21세기에 우리대학의 위상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재임기간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교육개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개혁 작업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른 감이 있으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교육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외적개혁과 내적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외적인 개혁은 난방설비 등 대대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한 것이고, 내적개혁은 '참사람 열린교육'을 중심기조로 영어와 컴퓨터등의 실용교육과 복수전공, 전과제도를 통해 열린교육을 활성화하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데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을 실시한지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과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2학기에 학부입학생들이 전공선택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1차적인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학내 면학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교수님들은 연구업적경기를 통해, 학생은 상대평가제도를 통해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도태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무한 경쟁시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지요. 앞으로는 교육개혁에 따른 시행착오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교육개혁의 내용 중에는 복수전공, 전과제도, 학부제, 등이 눈에 띄는데 이러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 교수, 학교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중에서 학교가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제도개혁의 보완책이나 개선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했듯이 정확한 보완책이나 개선책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이미 교육개혁에 필요한 학칙을 모두 바꾸었습니다. 학부제의 경우 전공선택인원을 정원의 1백50%로 학칙을 결정했습니다. 학생의 선택을 1백% 보장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근본취지입니다만, 급격한 변화는 자칫하면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1백50%라는 인원은 교무위원회에서 전과, 전부, 휴학생들의 인원이동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수치를 결정하고 검토한 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학부제의 최대 강점인 '다양한 학문선택권'은 정원 때문에 부득이 성적인 제한을 실시하게 되어 그 근본취지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의 1백 50%를 선별하고 점차적으로 확대시켜나간다면 '전공선택권'이 1백% 보장될 날은 그리 멀지 않은 듯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전

## “동국발전이 곧 불교발전”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 특성화가 관건



“학부제로 비교우위에 있는 학문을 특성화시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는 송석구 총장

공선택을 1백% 보장했을 때 실용학문이 아닌 순수학과 비인기학과는 자연히 상대적인 퇴조현상이 예측됩니다. 학부제를 두고 전공선택권보장과 순수학문보장이라는 팽팽한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무한경쟁시대입니다. 2003년에는 대학입학정원과 수험생의 비율이 같아진다고 합니다. 21세기에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특성화만이 살 길이고 이를 위해서 학부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 학부제에 대한 불신은 학생보다 교수들에게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정년보장제도를 도입할 것 입니다. 모든 전공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성화를 위해서는 비교우위에 있는 학문을 특성화를 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자각을 해야하고 현실에 대한 적응이 필요합니다.

덧붙이자면 학부제는 영역이거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복합학문의 시대에 적응하려면 어느 한 분야만을 공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학문을 접하고 그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학부제인 것입니다. 또한 복수전공과 전과제도 역시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지요.

처음 학부제를 도입했을 때 경상대는 경상학부로 공대는

공학계열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후 다시 세분화되었는데 학생들은 이것을 학부제에 대한 혼란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던 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시행착오보다는 계열에 따르는 학문적 연계성이 부족해 다시 세분화하게 된 것이지 이것이 혼란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고등학생들이 공학계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잘 모르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좀더 효율적인 학부제를 위한 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교수회, 직원노조, 학생회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국발전을 위해서 일년에 두 세번은 자리를 같이해 토론도 하고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학교는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총학생회에 제의도 했는데 응답이 없네요.(웃음). 솔직히 학교는 학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대농구장과 역경원 자리에 3층규모로 원-스텝서비스센터를 지을 계획인데 모든 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할 수 있는 최첨단 정보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관 뒤에 식당을 지어 천명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교내 식당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부처님께 귀머거리처럼 동국발전기금을 모았고 이렇게 학내 재주체를 위해 사용하는데 이 정도면 칭찬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학생들은 대화를 하자고 해도 안 하니 답답합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총장특강을 실시해 제도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이냐고 그때 많은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교수회, 직원노조, 학생회 뿐만 아니라 재단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전기금 모금에 불교인들이 적극 동참할 것이 성과라고 보지만 아직도 재단전입금은 미비한 편입니다. 학교와 재단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고 또 지금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재단과 학교는 협력관계가 되어야 하지요. 물론 우리 재단은 지금 총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중립과 사철과 독립되어 있어 재원보다는 인적자원이 풍부합니다. 발전기금모금의 대부분은 불교계에서 모이준 것입니다. 재단과 학교는 '동국발전이 곧 불교발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재단의 모체인 조계종과 불교인들의 후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일산 제3캠퍼스 건립의 진행상황과 재원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3캠퍼스는 일산에 약 10여만평 부지를 매입해 신학림동을 중심으로 최첨단 과학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이달 안에 시작해서, 내년 10월경에 제3캠퍼스와 불교종합병원의 1차 기공식을 하고, 기공식 이후에는 건설본부를 발족해 적극 진행할 것입니다. 재원은 모금과 재단의 수익사업의 두 가지를 병행해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3캠퍼스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선결과제가 있는데 첫째는 공과대학을 특성화시켜 자연과학의 본산으로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불교종합병원을 건립해 불교인의 영원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발전기금을 모금해서 재원마련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취임이후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오신 총장님의 교육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해 '참사람 열린교육'과 '봉사하는 교육'이 나의 철학입니다. 철학적 인간과 사회적 인간을 양성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학생들의 인·적성을 존중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김기영 기자>

## 1997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정보관리학과 : 정보관리전공
    - 나. 신문방송학과 : 신문방송전공, 출판잡지전공
    - 다. 광고홍보학과 : 광고홍보전공
    - 라. 정보통신학과 : 정보통신전공
  - 응시자격
    - 가. 석사과정 : 4년제 대학졸업자 및 1997년 8월 졸업예정자
    - 나. 연구과정 : 석사과정 동일
    - 다. 관리자과정 : 언론계, 기업체, 국가기관, 사회단체의 중견관리자
  - 원서교부 및 접수 : 1997.5.26.(월) ~ 6.5.(목) 17 : 00
  - 전형일시 및 장소
    - 석사, 연구과정 : 1997.6.14(토) 14:00 본 대학원
    - 관리자과정 : 1997.6.14(토) 13:00 본 대학원
  - 전형방법
    - 가. 석사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 나. 연구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 다. 관리자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전
    - 가.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군인에 각종 장학금 지급
    - 나. 해당분야 경력자는 우대함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 260~3722, 3723 Fax (02) 260~3724

언론정보대학원

## 1997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 석사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교육학과 : 교육행정, 교육경영, 상담교육, 유아교육전공
  - 나. 교과교육학과 : 국어, 지리, 역사, \*수학, 윤리, 철학, 미술, 한문, 체육, 영어, 물리, 화학, 생물, \*가정, 전자계산, 종교, 중국어교육전공 \*표시는 경주캠퍼스 수감가능
- 응시자격
  - 다.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 응시자격
  - 1)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 또는 취득 예정자
  - 2)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원 진학 학력을 인정받은자.
  - 3)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은자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4)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별도의 교직 및 전공학점을 이수한 자.
-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교부 및 접수 : 97. 5. 19(월) - 5. 30(금) 10:30-17:00 단, 토·일요일은 휴무
  -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교육대학원 교학부 및 경주캠퍼스 취업과
- 전형일시 및 장소
  - 1) 일시 : 97. 6. 7(토) 14:00
  - 2) 장소 : 본교 90주년기념학술문화관(추후 발표 예정)
- 전형방법
  - 1) 서류전형
  - 2) 면접 및 전공공술 시험
- 특전 및 우대전형
  - 1) 본인의 장학금지급내규에 의하여 공시립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공무원 재직중인 자, 조계종 재직승려 등은 장학금을 지급함(수입료의 30%)
  - 2) 공시립교육기관의 재직교사, 정부 행정기관 재직자는 경력을 감안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 평점시 가산점 부여함.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는 반드시 자격취득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지원해야함  
[자격증 발급기준 자료 참조(교학부 비치)]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학부에 문의 바람 ☎ 260-3109~3110

교육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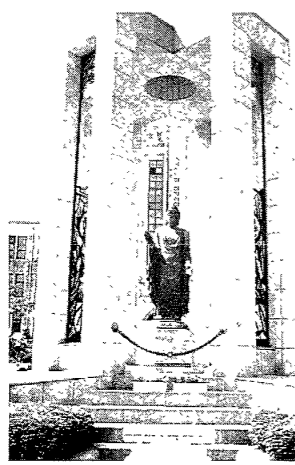


# 종립학교의 위상과 역할

개교 91주년 기념  
부처님오신날 특집호

## 동국의 명소

### 성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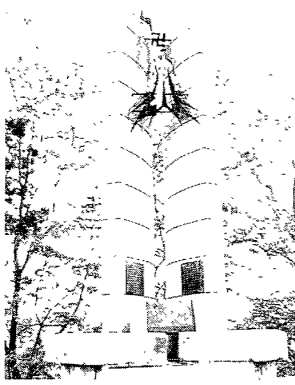
교정 중앙에 위치한 석가여래 청동불상으로 1964년 11월에 건립된 이래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로 부처의 뜻을 선포하고 있다.

### 동악로



동악 선생전에서 그 지명이 유래된 후문에서 대학본관에 이르는 이 길은 1만 동악인이 매일 오르는 길이다. 교정을 대표하는 길로 비탄진 경사도가 익숙하다.

### 동우탑



만해광장의 남쪽 끝 언덕에 우뚝 솟아 4·19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4·19혁명 당시 반독재, 반외세 민족의 자유를 외치며 돌이키신 노회두, 김중배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전 동악인의 뜻을 모아 세워졌다.

### 흔터



명진관 뒷편으로 남산 오르는 길에 자리한 작은공간으로 7백이파인뿐만 아니라 1만 동악인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 동국, 상처로 얼룩진 현대사 딛고 지혜와 자비정신 구현 21세기 불교 발전위해 인적·물적자원 본산으로 거듭나야

### 건학의 역사적 배경과 이념

우리대학은 금세기 초인 1906년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민족불교의 인재양성을 위해 삼보장재로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90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쌓아 온 동국은 한국 근현대사의 파란만장한 격동기를 거치면서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정신을 잃지 않고 구현해왔다. 부처님 오신날과 개교기념일을 맞은 이 시점에서 불교와 종립학교의 발전적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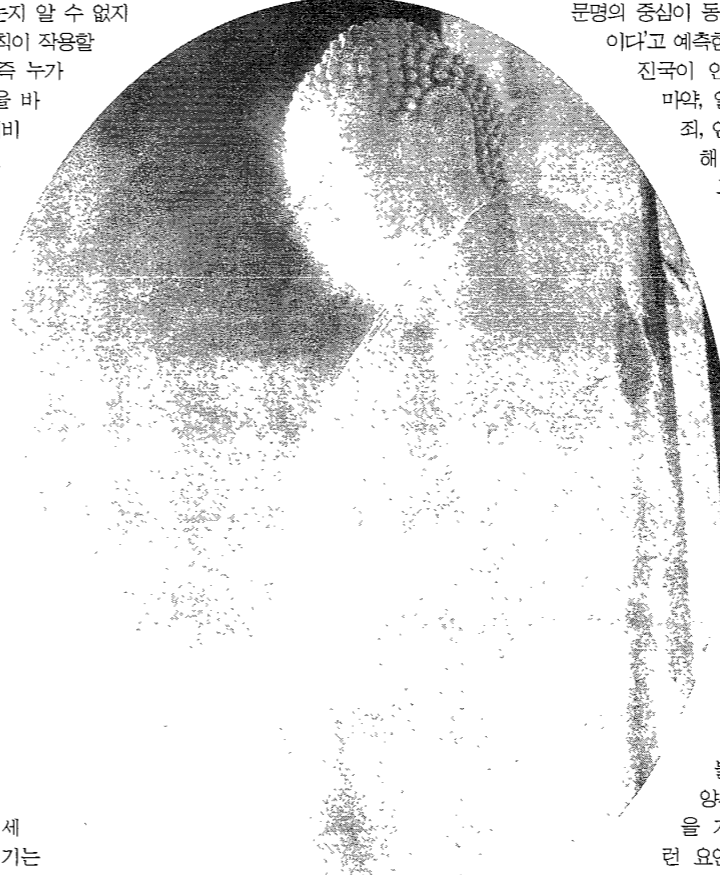
대학이란 사회와 역사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보편적인 교육기관이다. 불교 종립대학이란 교육기관중 설립 운영 주체가 불교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까닭에 이 보편과 특수 관계의 상호 대립적 관계로 보거나 어느 한면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는 바른 이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종립학교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는 민족사적으로나 불교사적으로 시련과 고난의 시대였다. 금세기 전반기는 일제 식민지 침략, 중·후반기는 민족분단과 불교계의 왜색잔재 청산문제로 질곡의 세월을 보냈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민족불교와 종립학교가 어찌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겠는가? 당연히 숭한 내홍과 상처로 얼룩진 역사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보고 들어 알고 있듯이 동국은 민족과 불교계의 도움이 되는 인재를 배출하여 크나큰 기여를 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실로 종립학교를 세우고 발전시켜온 숭한 선각자들의 지혜와 원력에 깊은 고마움을 표할 뿐이다.

### 미래를 위한 과제

이제 시련의 금세기도 저물어가고 있다. 다음 세기는 어

떤 역사가 전개될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인과의 법칙이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즉 누가 얼마나 시대 흐름을 바로 보고 거기에 대비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따라서 불교계와 종립대학도 미래를 위한 준비에 지혜와 원력을 모아 나가야 할 때이다. 지금 학교 소임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쌓은 바와 같이 정진의 노력을 계속리 하지 않을 때 미래는 더 앞찬 결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근대 적지 않은 세 계석학들이 21세기는



명명의 중심이 동양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지금 서양 선진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 미약, 알콜중독, 각종 범죄, 인종갈등, 환경, 공해 등에 대해 기록교를 비롯한 서양사상은 실득력 있는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선과 인간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으로는 이런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현재 서양의 교회가 날로 침체되어가고 적지 않은 서양인들이 불교를 비롯한 동양사상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런 요인이 작용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 흐름을 인식할 때 동양 사상 중에서도 불교사상의 진수를 계승하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계종단은 정화운동의 후유증에 따른 고질적인 내용으로 이 수행정신을 발전시킬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뜻있는 많은 국민들이 불교에 실망하고 등을 돌린 것 또한 가늠할 현실이었다. 하지만 몇 년 전 성철스님의 열반에 따른 추모열기에서 확인되었듯이 비람직한 수행자에 대한 관심과 존중은 우리 민족 정서에 깊숙히 내면화되어있다.

그러므로 종단은 이러한 수행정신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종립대학은 불교사상을 시대상황에 맞게 연구, 교육하는 역할을 분담해 나가려면 미래는 매우 희망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종단은 시대에 맞는 지속적인 개혁이, 종립대학은 부처님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와 새로운 비전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종립대학은 불교인구의 본산이다. 부처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제방면에 맞게 이문화하고 이를 통해 인재를 키워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대학은 제반 학문이 집합교류하는 곳이니 민족 불교사상을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 공학의 영역으로까지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청된다.

종단과 종립학교는 이러한 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하여야 한다. 21세기를 몇 년 앞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주저하고 머뭇거리기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박희승

(사회학과 조·조계종 교육원 연구부장)

### ◇ 개교 91주년 기념 본교 이미지 설문 조사

## 재학생 64.3% '건학이념 잘 알고 있다' 불교관련 학문 활성화로 종립대학 위상 높여야

서울캠퍼스는 개교 91주년을 맞이하는 본교의 불교적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남녀 구분없이 진행되었으며 총 3백84명을 설문조사하여 평가를 하였다. 학년별로 1학년이 1백22명(31.7%), 2학년이 1백 6명(27.6%), 3학년 86명(22.3%), 4학년이 70명(18.2%)으로 구성됐다.

이번 설문문의 주된 관심은 불교와 본교와의 이미지에 대한 여론조사였으며 불교와 관련한 질문지는 선택형질문과 개방형질문을 사용했다. 한편, 본교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평가에 대해서는 의미분별척도를 이용했으며 7점척도를 사용하여 7에서 1점으로 점수화하여 평가를 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오차한계는 5%이며 통계적 유의도 0.05수준으로 신뢰한계는 95%이다. 또한 중복 응답은 도중 탈락시켰으며 주관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큰 분류유형을 만들어 작성하였다.

본교의 건학이념인 불교와 관련한 설문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신입생중 58명(47.5%)은 잘 모르고 있지만 대부분의 재학생들 1백89명(72.1%)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관련없이 불교에 대한 느낌은 대부분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종립대학교로서 불교 위상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종립대학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느끼게 하는 것으로는 정각원, DUEB의 아침방송에 나오는 반야심경이라고 답했다.

이래는 질문에 대한 세부평가와 분석 내용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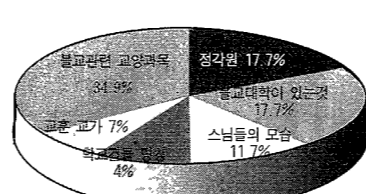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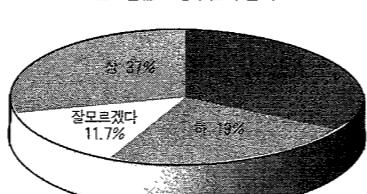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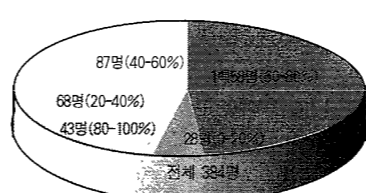
### 건학이념

본교의 건학이념이 '불교'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2백47명(64.3%)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모른다는 1백37명(35.6%)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를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나누어 신입생 응답자 58명과 재학생 응답자 1백 89명을 비교해 보면 재학생이 건학이념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건학이념을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건학이념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는 불교와 관련된 교양과목 1백34명(34.9%)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정각원 68명(17.7%) 불교대학이 있는 것 63명(16.4%) 스님들의 모습 45명(11.7%), 학교건물의 명칭 40명(10.4%) 교훈교가 27명(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하는 속에서 느끼게 된다는 답변도 있었다.

### 불교에 대한 이미지

불교에 대한 자신의 느낌에 대한 점수부여 질문에 대해 자신의 종교가 불교가 아닌 사람들(무교를 포함해 2백38명 61%)의 답변을 살펴보면 예상과는 달리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값(각 유목의 중간값으로 계산)은 52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평균치(각 유목의 중간값으로 계산)는 62.4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볼 때 대체



로 본교 학생들은 불교에 대해 심한 거부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호의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각 점수 분포는 0.10점이 4명 10~20점이 11명, 20~30점이 26명, 30~40점이 33명, 40~50점이 41명, 50~60이 78명, 60~70이 71명, 70~80이 65명, 80~90이 38명, 90~100이 17명으로 나타났다.

### 불교교양 수업에 대한 평가

불교 관련 교양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불교에 대한 생각변화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수강경험이 있는 학생(286명 74.5%)중 수강한 후의 불교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긍정적이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134명이 그렇다(47.5%), 변하지 않았다는 73명(19%),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79명(20.6%)였다.

### 학교생활에서의 불교가 차지하는 비율

학교생활중 불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대부분의 학

생들(1백58명, 41%)이 40~60%에 귀결되고 있으며 평균치(각 유목 중간값으로 계산 52.5%)도 이 정도이다. 0~20%가 28명, 20~40%가 68명, 40~60%가 1백58명, 60~80%가 87명, 80~100%가 43명의 분포로 불교가 학교생활에 차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원인으로 종립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언제 느끼게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러 교내 행사시에 행해지는 삼귀의례와 사홍시위를 할 때 89명(23.1%), 부처님 오신날 기념으로 교내에 참동원 연등을 볼 때 1백14명(29.7%)이었으며 그밖에 불교강의가 68명(17.7%), 불상이 51명(13.3%)등 여러 답변이 있었다.

### 종립대학교로서의 위상과 갖추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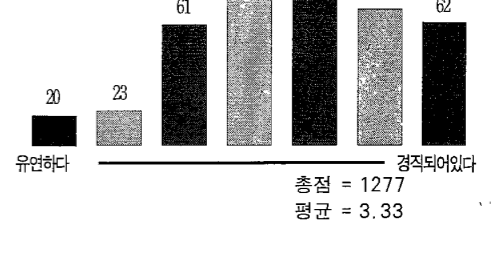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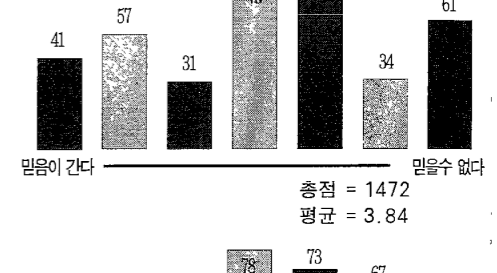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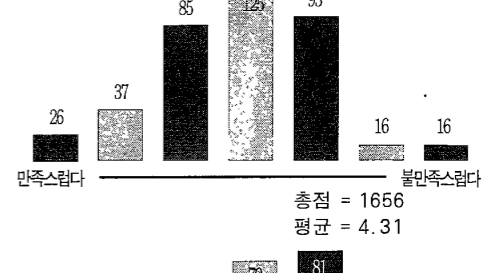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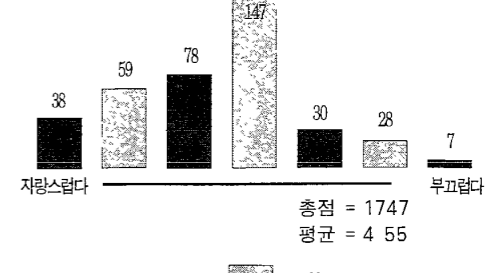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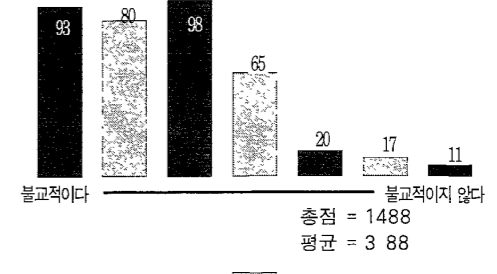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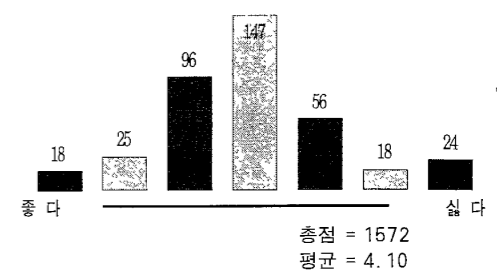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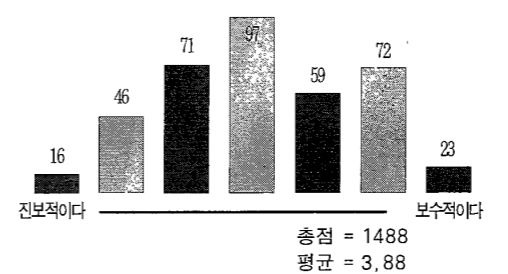
심중으로 나눠서 응답지에 상이하고 응답한 학생이 1백42명(37%) 중이라고 답한 사람이 1백24명(32.3%) 하라고 답한 사람이 73명(19%)이었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45명(11.7%)이었다.

종립대학교로서 갖추어야 할 것대 한 질문에 응답을 한 학생은 불교 관련 학문의 활성화·연구(45명) 박물관의 활성화(5명), 건학이념구원(15명), 학생·학교의 서로를 이해하는 자비심(23명), 재단의 많은 투자(34명) 등으로 나타났다.

### 학교에 대한 태도 평가

의미 분별척도를 이용해 평가를 하였으며 전체적인 평가는 대부분 중립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조하고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 매우 상당히 약간 중립 약간 상당히 매우



(이태훈 기자)

◇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간담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박정민 이하 전대기련)에서는 '국가 부도위기에 처한 한국경제 그 원인을 진단한다'란 주제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지난 28일 본교 1백주년기념 문화관에서 실시했다.

간담회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요즘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불안 현상은 70년대의 박대통령이 주도, 형성한 재벌위주의 경제체제가 원인"이라며 "이러한 정·경 유착의 구조적 문제가 오늘날에 심화된 것"이라고 밝히고, 대만의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체제 성공을 비교, 제시하며 5개 재벌사들의 매출액이 상장 30대그룹 전체를 포괄하는 우리나라 경제실정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권영길 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이 경제의 주체가 되고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만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가 살 길이다"라고 경제 회복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간담회가 끝난후 권영길 위원장과 패널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지난 총파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은  
=총파업 전선이 형성되었다는 면에서 우선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까지 장기적 기간을 갖고 이루어질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모든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김정권의 총체적인 책임만은 아니다. 그것은 재벌위주의 경제체제 속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에서 더 심화된 것이다.

-경제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임금경쟁 시대는 갔다. 소용품, 다량화와 기술개발 위주의 기업 경영만이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 경제가 살 길이다.

-노학 연대에 대한 입장.  
=민주노총과 학생운동 단체들과의 운동방향, 방법, 정서가 일치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대개혁에 참석할 이유는.  
=노사개혁 위원회에 참여하여 민주노총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경제대개혁의 참여한 것도 그런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최정식 기자)

# 교수는 스승이 아니고, 학생은 제자가 아니다? 스승의 날 맞이해 사제간 관계 되새겨봐야



"캠퍼, 오 마이 캠퍼!"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스승의 모습을 다룬 영화로 선정된 '죽은시인의 사회'에서 로빈 윌리엄스는 다른 교사와는 달리 시를 통해 엄격한 학교와 부모의 통제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 학생이 자살을 하자 윌리엄스가 그 책임을지고 사죄하게 된다. 그가 교실을 떠나는 순간 학생들이 하나 둘씩 책상위로 올라가는 영화의 끝장면은 우리에게 스승과 제자와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케 하며 잔잔한 감동을 준다.

대학사회에서는 사제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져버린 것일까? 대다수가 '교수=스승', '학생=제자'라는 도식에 고개를 내젓는다. 연구실을 찾아가는 몇몇 학생을 제외하고 교수는 학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학생은 자기가 듣는 강좌의 담당교수 이름도 몰라 시험답안지를 낼 때 교수이름을 기재하는 공간을 비우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캠퍼스에서 교수에게 인사하는 학생도 찾아보기 힘들다. 극히 일부지만 교수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학생이 교수를 폭행하는 사건도 일어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사파대의 한 학생은 "스승과의 거리가



멀게만 느껴진다"며 "지식 전달자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대학교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에 반해 또 교수는 "학생들

1984년 12월 학림관 앞에 세워진 '시제 동행비'. 사제의 도리를 존중하고 참된 교육의 길을 같이 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생각을 밝혔다. 이에 반해 또 교수는 "학생들

집는다. 이렇듯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

"교수는 스승이 아니고, 학생은 제자가 아니다" 어쩌서 이런 말이 생겨난 것일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학생들의 잘못된 가치관이다. 대학이 아무리 자유로운 배움의 터라지만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 자유인양 행동하는 모습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이다. 수업 도중에 벗어난 나가고, 인사할 줄 모르는 학생들에게서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으로 교수의 지나친 권위주의를 들 수 있다. 권위주의는 많은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세대에게 거부감을 주고, 더구나 자유로운 사고를 추구하는 대학생들에게는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사실이다. 지위에 맞는 일정정도의 권위는 필수요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친 권위는 조지의 내부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고등학교 윤리 교과과정에도 나온다. 교수의 지나친 권위주의는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그로인해 서로의 거리가 멀어진다든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두 원인보다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초·중·고등학교에는 담임제가 있어 교사와 학생이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지만, 대학은 그렇지 못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그것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지도교수제도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취업위주의 교육도 문제다. 인간관계 보다는 취업에 대한 단순직식의 획득을 우선순위에 높여놓아 대학사회에서도 작은 의미의 인간소외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의 없는 학생과 지나친 권위에 쫓겨 있는 교수는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 일부의 개선 없이는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가 호전되기 어렵다. 학생은 교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수는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취업위주에서 벗어난 인간적 교육정책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부일체"란 말이 있다. 임금과 스승, 부모는 같다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스승을 부모처럼 존경하며 지내고 있는가? 오는 15일은 '제 16회 스승의 날'이다. 이번 스승의 날에는 교수님을 찾아가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이 한마디를 해보자. "스승님, 감사합니다" 라고...

(김용환 기자)

## 원천봉쇄 속 서총련·서남총련 출범식 개최... 2백여명 연행

### 장전섭 신임 서총련의장 "한보진상규명-대선자금공개"등 촉구

지난 9일 송실대에서 치러지기로 예정됐던 제 7기 서울지역 남부지역 총학생회 연합(의장=이지용·중앙대 총학생회장 이하 서남총련) 출범식이 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해 서울대로 정소를 옮겨 4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사전행사로 진행된 서남총련 결의대회에 각대학 총학생회장단이 나와 '류재를 열사 및 연대학생 정신계승, 한보비리 진상규명에 따른 김현철 정문의 개혁, 민족의 통일의 밑거름으로 북한주민돕기, 한총련 강화를 위한 일심단결'등을 호소했다. 이어 진행된 서남총련 출범식은 민중의례, 서남총련 10개 대학중 7개 대학 총학생회장의 인사말, 서남총련 의장 울림, 출범선언문 낭독, 문예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처럼 서남총련의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87년 6월 호헌철폐, 복제타도, 민주주의 승리를 외치던 그날들을 기억하며 악법철폐, 김영삼 정권 조기 퇴진을 이뤄내기위해 725천 서남총련 학생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97년을 규정하고 "학우들의 삶에 기반한 운동을 벌이고 나아가 남북이 하나되어 전민항쟁을 변혁의 힘으로, 통일의 염원으로 일구어 나가야 한다"며 투쟁의 결의를 높일 것을 호소했다.

한편 학생들이 송실대로 진입하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자 미리 배치돼 있던 전부경장들은 길을 막고 최루탄과 최직기를 난사했으며, 송실대학 안으로도 70여미터가량 진입해 학생

3명을 연행해 갔다. 이에 서남총련 출범식을 준비하던 송실대 학생들은 문예단만 서울대로 이동하고 나머지는 연행학우 구출을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자용 서남총련의장은 "대학생들이 한때 어우러지는 장을 열었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라고 과대 학우까지 끌고 가느냐"며 "이러한 이 땅의 슬픔을 청년들이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며 투쟁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남총련 출범식이후 송관관대에서 치러지기로 예정됐던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의장=장전섭·단국대 총학생회장 이하 서총련) 출범식은 송관관대가 원천봉쇄됨에 따라 이날 저녁 11시경 서울대로서 개최됐다.

예년의 1만명이상 참가했던 서총련출범식이 올해는 경찰의 원천봉쇄와 폭력진압으로 6백여명만이 참가한 가운데 서총련의장과 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오민규=경기대 총학생회장)의 웅담식 중심으로 간략히 치러졌다. 서총련 장전섭의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서울지역 4만 자주적 단결체인 서총련은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역사를 밝히는 구국의 횃불을 변함없이 지켜져왔었다"며 "광복한 김영삼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민중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김영삼 정권의 비리를 일기내 밝혀내 고 아직도 한반도에서 내정간섭을 자행하는 미국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해내는 전민항쟁의 97년을 만들어 가자"고 주장했다.

한편 서총련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1천여명의 학생들은 10일 새벽 1시경 송관관대 뒷편 북한산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미리 배치돼 있던 전부경장과 대치해 1시간여 화염병 투척과 투석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1백 50여명만이 송관관대 진입에 성공했으며, 1백 여명의 학생은 주택가와 경의대로 몸을 피했고 나머지 4백여명은 아산에서 3시간가량 노숙을 하다 국민대로 이동했다. 이후 오후 3시경 국민대, 경희대, 송관관대에 흩어졌던 학생들이 총정로 신한국당 담사로 진격하여 '한보비리 진상규명과 97년 대선자금 공개'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고 지하철에서 선전활동들을 하며 서울대로 향했다.

이번 서총련 출범식기간 동안 2백여명의 학생이 연행됐으며 본교 4명학생도 연행돼 불구속 기소되었다.

본교 구장주 총학생회장은 "유래없는 정부의 탄압속에서도 청년학생은 서총련 출범식을 치러냈으며 서총련의정신을 몸집내내고 한총련으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출범식의 의의를 밝히고 "정부가 집권말기의 광복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언론의 편파보도와 교묘한 정권의 술책에 의해 학우들이 이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1만 2천 동약의 학우 여러분들이 올바른지 못한 정권의 모습을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몸짓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진 기자)

동약로

미운 오리

'저지 공간 확보하라' '학교 당국 각성하라'

지난 6일 정각원 앞에서 30여명의 학생들의 구슬픈 외침이 들려온다. 그 소리는 다름아닌 울며 처음으로 신실된 아시아 지역학부생들의 목소리.

이날은 정각원 법당에서 송석구 총장의 '명사 초빙 대법회'가 열리는 날이다. 교직원과 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신실과 학생들이 겪는 외로움(?)을 학교 측이 몰라주기 때문에 더욱 그들의 목소리는 울려만 가고, 몇몇 교직원이 나와 '학생들 조용히 좀 해. 법당 앞에서 더군다나 법외집중에서 이러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라고 학생들을 다그친다. 얼마후 학생들은 아시아 지역학부생들을 높이 세운 채 동국관으로 발길을 옮긴다.

신성한 법당 앞에서 한 일은 잘못된 일일테지만 학교 측과 대화가 언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아시아지역학부 학생들의 주장.

신실과는 학교의 '미운 오리 새끼'인가? 학생회실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산배달은 학교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아 무도 몰라주는 고통은 그들에게 크나큰 상처가 아닐 수 없다. 신실과의 불부립은 비단 아시아지역학부생만은 아니다. 재작년 총어중문학 과, 신문방송학과, 광고학과도 똑같은 을 빚었다. 저지공간과 전공교수를 확보했던 그날의 험준한 투쟁들이 울려도 반복될 줄이야...

학생들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비와 함께 울려져서 그들의 투쟁은 "학교 측에 충분히 반성되었을 것이다"라는 김선문 이간강화 총학생회장의 예기로 정리됐다. 동국관 앞에서 총화를 하는 자리에서 박수치며 웃을 짓는 그들이 언제까지 '미운 오리 새끼'일 지... 해답은 학교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오인택 기자)

생명존중·정도경쟁 중외제약

SPC 500만병 돌파 및 MPS 출시기념 - **SPC 베스트 선물추진제!**

SPC 베스트 선물추진제! EASTPAK백팩 50% OFF, ck 1장 100% OFF, 동원MPS 1000% OFF, 80% 할인된 200% OFF

**렌즈관리의 베스트커플 SPC, MPS를 구입하시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주세요!**

**추진 1** SPC나 MPS를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강력한 휴대용 콘택트렌즈 관리세트를 드립니다.

**추진 2** SPC나 MPS를 구입하신 후, 휴대용 콘택트렌즈 관리세트에 부착된 베스트커플 스티커 (그림참조)를 판매처에 붙여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유효기간: 5.16(금)~6.4(수) (6.4 우체국 소인 유효)  
▶ 보내실곳: 156-757 서울특별시 남산동우체국 사서함 96호  
중외제약 광고팀 (☎ 2406-6311~4)  
▶ 경품내역: 베스트커플셋(50명) - EASTPAK백팩가방 SPC상(100명) - ck 1장수 MPS상(200명) - 헤어 메니큐어 병운상(1000명) - 동원 MPS

▶ 발 포: 6월 10일 스포츠신문

**렌즈관리의 베스트 커플 - SPC, MPS**

렌즈세척과 단백질제거를 완벽하게 해주는 중의 SPC! 하루 한 번 세척으로 잘 유지된 단백질까지 깔끔하게 제거해주므로 세균감염, 눈의 피로까지 방지해 줍니다.

행운에서 소독, 보존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새로운 MPS! 스포츠 렌즈 필터 및 렌즈 중의 MPS는 중의 SPC와 항균력을 이루어 병균, 소독, 보존, 윤활작용에 미치는 다양한 기능을 새로운 한류입니다.

렌즈관리의 베스트 커플 **SPC** 액 **에피에스** MULTI PURPOSE set

■ 수입원제품 ■ 경정소(가짜)가: ₩5,500 ■ 수입원제품 ■ 경정소(가짜)가: ₩5,500

중외제약 음성정보시스템 (02)815-1999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02)815-1999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02)815-1999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문화단신

영화이야기

◇아버지...김정현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장길수 감독의 영화. 죽음을 앞둔 아버지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단절된 가족들간의 사랑을 따뜻하게 그린 감동적인 가족영화. 지난 10일부터 서울극장에서 상영 중.



연극이야기

◇점야 점야 콩점야...17년전 광주 항쟁 당시 도장을 지키다 총에 맞아 죽은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6·25 당시 죽은 북한 처녀와 문자혼례를 치르게 하는 내용. 김명곤 작·연출. 극단 아리랑의 마당극. 오는 6월 29일까지 아리랑 소극장에서 공연 예정. (문의)741-6069

책이야기

◇거부...그리스인들의 정신적 주자인 안토니스 사마라키의 세 번째 단편집. 절망의 끝에서 한 조각 희망을 만들어낸 보통 사람들의 신화가 주 내용. 신서원 출판, 최지영 옮김.

음악이야기

◇강산에 콘서트...라이브 무대를 통해 록의 정신을 표출하는 음악인 강산에게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를 마련한다. 방송에서 부르지 못한 노래들을 선보일 것이며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라이브 극장 2관에서 콘서트를 할 예정. (문의)921-0390

◇조정래(국문 66쪽) 동문을 만나서

작가는 오늘의 모습 그려내는 용기 있어야

강연통해 학생들과 민족현실 고민하는 이심전심의 시간 기대

지난 4월 29일 '민족문화와 역사'라는 주제로 2시간 남짓 소강당에서 열린 조정래(국문 66쪽)동문의 강연은 그의 인생관과 작품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여러 학교에서 계속되던 교수초빙제의도 거절하던 조정래동문이 본교에 대한 애정과 후배에 대한 관심으로 석좌교수를 수락하고 첫번째로 이루어진 이번 강연에서 그는 "강연을 하게 되면 작품 쓰기가 쉽지않기 때문에 거절했었다"며 "부처님께서 맺어준 인연을 더이상 거부할 수 없어 석좌교수 제의를 받아들여게 됐다"고 말한다.

앞으로 학기당 3, 4차례 정도 열리게 될 조정래동문의 강연은 문예 창작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될 듯하다. "잡재민 감성을 깨치고, 알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시켜주는 일이 내가 할 일"이라며 이론중심이나 경험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그는 20-30년간 창작을 하면서 깨달은 창작의 요령, 방법 등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것이라 고 한다. 또한 이 강연이 학생들의 창작기를 마련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작가는 문장 하나하나를 쓰는 언어의 개념부터 크게는 소설의 주제 설정, 작가의 의식이 무엇인지까지 포괄해서 강의할 계획이며 그러면서 학생들과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심전심의 시간을 가장 기대한다고 한다.

대학시절 문학에 대한 열정이 남달리 강해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머리속에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며, "대학 동창들을 지금 만나면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할 정도였으니까..."라고 당시를 회상하는 조정래동문. 34년전 바로 이 캠퍼스에서 4년간의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평생 문학을 할 것인가에 대해 자질에 대한 회의와 문학을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했고 '이 땅에서 하는 문학은 민족적 비극을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열정 하나로 문학을 선택했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냉혹해진 경제사정이 오히려 작가에게는 위협한 것일 수 있다며 요즘 학생들에게 "상업적 유희를 스스로 극복하고 문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항상 명성을 떨치던 70년대 본교 국문과와 80년대의 후반기도 넘어버린 지금의 위상을 비교했을 때 예전같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그 원인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첫째는 70년대이후 대학이 많이 생기면서 아울러 문인을 배출한 학교도 다양해졌고 이로 인

해 동대의 독점적 기반이 사회적으로 흔들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 둘째는 교육제도의 문제. 암기위주로 된 정적으로 학생들이 입학하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개성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 셋째는 동국대학교 자체의 문제로 60년대 교수진들이 변화되지 않고 영향력도 예전에 비해 감소한것과 이를 뒷받침 할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교수로 확보하지 못한 점 등등 그의 일목일목한 분석에서 학교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정이 배어난다.

순천 선암사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스님이다. 일본 식민지시대에 종교의 황국화 정책에 의해 스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이기에, 그의 문학이 불교적 색채를 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대장경'이라는 불교소설을 썼고 '백산맥'과 '아리랑'에서도 사회·역사적 임무를 같이하는 승려를 그렸다. 지금 집필 계획중인 근현대사 작품이 끝나

면 불교를 본격적 주제로 한 인간존재의 문제를 비롯해서 불교적 가치를 둔 작품을 3-4편 집필할 계획도 있다. "불교와 관련된 글을 쓸 때 가장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 밑바닥에서 힘이 나온다"며 "무의식속에 자리잡고 있어서인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자신 있게 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몇해 전인 94년 아픔을 겪기도 했다. "분단극복의 문학을 충실히 하고자했던 태백산맥이 국가보안법에 걸린 것이다." "정치논리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민족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한국 민족문학의 성과이고 목표"라고 생각하는 그는 "그 과정에서 백치산의 행동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묘사했던 부분이 고발됐다"고 말한다. 3백만 이상의 독자들이 검증한 작품을 일부분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95년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한차례 지금 미해결 상태이다. 그는 미해결 상태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작품구성의 테크닉과 4백 50만 독자들의 힘"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 시대를 사는 작가가 올바른 이야기를 쓰고 역사위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한다"는 그는 유서를 2편이나 바껴 쓰면서도 4·19이후의 근현대사를 집필하려는 계획을 고집한다. 국가보안법은 악용되는 소지가 많고, 그것은 시민들의 삶과 작가의 창작을 억압하기 때문에 분단상황이라 폐지는 못하더라도 악용되는 것만은 철저히 막아야하고 정치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내년 1월부터 4년간 4·19이후의 근현대사 40년을 집필할 예정이다. 전 10권으로 구성된 이 작품 외에도 75세가 될때까지 집필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는 그는 앞으로 30권의 책을 쓸 것이고, 그애야 살다 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항상 '단 1명도 안 읽어도 좋다. 이야기만은 해아졌다'는 신념으로 글을 쓴다는 조정래동문은 문학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늘의 모습을 그려내는 힘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인류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문학이 한 시대를 대표할 수 없지만 소금 없이 어떤 음식도 맛을 낼 수 없듯이 문학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그의 말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심미선 기자)

달 하나 천 강에

우리시대의 겸손



현대는 과학의 시대이다. 과학하면 먼저 머리 또는 거대한 머리-컴퓨터라는 표시가 떠오른다. 그러나 컴퓨터-머리가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주지는 못한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고 문제를 감지하는 것은 머리가 아닌 '마음'이다. 다시말해 출제된 문제를 푸는 것은 머리가, 무엇인가를 문제 삼는 것은 마음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마음'이 중심이다. 선조들의 예술행위나 기교는 '마음'을 그리고 영남화학사 기교 학파나 하는 '학파'들을 생각해본다. 오늘날의 대선자금논쟁과 지역분파, 그리고 선조

들의 논쟁과 지역파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또한 '마음'의 차이이다. 이기적이고 용렬하고 편협한 것이 전자의 마음가짐의 특성이라면, 의외하고 대범한 것이 후자의 마음가짐의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처럼 이기적이고 용렬하고 편협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처럼 치졸한 모습으로 묶어놓고 있었을까? 첫째는 이 시대의 목적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 대학인이 먼저 이기적이고 용렬하고 편협한 마음가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안주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학문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둘째는 '세계화'로 대변되고 있는 '가짜 근대화'의 범이랄 수 있는 허상을 좇는 '일류병', '신진국병'이 아닐런지 반성해 볼 일이다. 셋째는 우리의 오늘의 역사와 미래의 청사진을 보며-역의 갈등구조 혹은 좌우의 대립구조도 볼 수 밖에 없는 정말 깊게 반성해 볼 일이다. 좋은 마음이 아닌 '해방된' 마음으로 다시 처음부터, 정말 깊게, '우리'를 이해하고, 다시 바라볼 일이다. 그러면 좁은 마음에서 해방된 마음으로의 문자 그대로 '회심'은 어떻게 가능한가? '탄남'의 회복으로만이 가능하다. 이는 자신이 머리 설정한 목적과 견해에 의거해서 모든 만남을 차별분단하고 '수단화'했던 일그러지고 폐쇄된 만남으로부터, 반듯하고 열린 만남으로의 회복을 뜻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연과의 만남, 사회와의 만남, 학문적-종교적 만남 등 모든 만남 속에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나' 발견하려는 것이다. 여기서의 '마음의 해방'과 '탄남'의 회복이란, '결허성'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 본 것이다. 이러한 '결허성' '겸손성'만이 우리 삶(역사)의 창조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우리 모두가 동참해갈 수 있는 요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히 요즘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화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듯한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이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절호의 기회로 포착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나아가서 북에 대한 식량 원조, 통일비용 준비 등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사회주의의 북한(소위 좌익)과 방향 '키'를 잃어버린 듯한 자본주의의 남한(소위 우익), 우리 모두의 '마음'을 통일시키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통일의 청사진을 그려내는 작업, 그래서 우리 민족이 좌우 대립을 넘어선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설계를 그려내는 작업이 진짜 중요한 준비작업이라고 제안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작업이야말로 흔히들 말하는 선진-유명-석학에게 위탁할 수도 없고, 우주선을 지휘한다는 벤자민에게도 그 지휘를 부탁할 수도 없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다. 또한 이 작업이바로 앞으로 21세기 우리 인류가 나아가길 우리 민족이 인류에게 제시(공헌)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것이야말로 단절의 역사를 배이르게 신용하던 우리가, 참으로 교만했던 재공주의와는 달리 인류사에 겸손하게 공헌할 수 있는 뜻있는 작업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 위대한 작업은 우리의 '마음의 해방'으로부터 시작하며 '마음의 해방'은 우리의 일상적인 '탄남'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한다.

김 병 옥 법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KEUMKANG CHEMICAL CO., LTD. KOREA CHEMICAL CO., LTD. KEUMKANG CONSTRUCTION CO., LTD.

앞서서 달리는 사람  
쉽없이 달리는 사람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의 내일은 끊임없는 인재양성과  
앞선 기술개발이 좌우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 (주)금강  
앞선 품질의 페인트, 수지, 실란트를 만드는 - 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철저한 시공 - 금강종합건설

바로 이들이 도전의 현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쉽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KCC**

(주) 금 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 총학, 청년강좌 '민족자주학교' 개최

## 신입생 대상... 진보적 내용으로 강의구성

총학생회(회장=구장주·아간경영4)는 97년 목曜 대중제 행사 일환으로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14일 제외) 매일 오후 6시 학술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족자주학교' 첫번째 새내기 청년강좌를 개최한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에게 진보적인 내용의 강좌 수강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과 민족대학으로 가는 첫 걸음을 마련한다는 점이 이 강좌의 취지라고 밝혔다. 처음으로 열리는 이 청년 강좌는 새내기를 주 대상으로하며 12년간의 제도적 교육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로 알고 올바른 대학생활을 하자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학생회 한 관계자는 "민족대학이란 교육내용에 있어서 민족적, 민주적, 현대적, 진보적, 통일지향적으로 우리 교육이 변화·보완되어야 하는 곳"이라며 "이 청년강좌는 민족대학의 토대인 물적, 제도적, 인적, 사상적 조건중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날인 12일에는 본교 정치외교학과 강정구 교수의 '대학시절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이 열린다. 대학 4년간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경험담 중심으로 진행된다. 둘째날인 13일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천재 부의장이 '우리 삶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15일에는 서울연합자주통일위원회 위원장이 '80년 5월과 97년 5월'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16일에는 김형수 시인이 '문학작품의 선택과 비로워가'라는 주제로 강연

을 진행하여 시, 소설을 많이 접하게 는 기준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대학생생활에서 문학작품을 선택하

## 졸업준비, 4학년 졸업앨범 촬영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박상욱·경제4)는 지난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4학년을 대상으로 졸업앨범촬영을 실시한다. 각 과별 촬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자	오전	학과	오후	학과
5월12일(월)	10:30	역사교육과	1:30	행정학과
	11:30	가정교육과	2:00	사회학과
	12:00	체육교육과	2:30	경제학과
5월12일(화)	10:30	무어학과	1:30	정보관리과
	11:00	경영학과	2:00	화학공학과
	11:30	회계	2:30	토목공학과
5월15일(목)	10:30	인부학과	3:00	총학
	11:00	건축공학과	2:00	전자공학과
	11:00	산업공학과	2:30	기계공학과
5월16일(금)	10:30	식물자원학과	1:30	이부원제
	11:00	생명자원경제	2:00	이부원문
	12:00	응용생물학과	3:00	이부원영
5월19일(일)	10:30	이부무역	1:30	북한학과
	11:00	철학과	2:00	반도체과학과
	11:30	이부정보관리	2:30	전신통계과
5월20일(화)	10:30	정보학과	3:00	총어
	11:30	경찰행정학과	1:30	수학교육과
	11:30	전기공학과	2:00	컴퓨터공학과
5월26일(월)	10:30	영문과	1:30	국민윤리학과
	11:00	국문과	2:00	독문과
	11:30	일문과	2:30	사통공학과
5월27일(화)	10:30	사학과	1:30	미술학과
	11:00	수학과	2:00	연영학과
	11:30	화학과	2:30	국어교육과
	12:00	통계학과	3:00	산림자원학과

## 스승의 날 기념 '재학생 모교 방문' 실시

### 오는 15일까지 접수... 교통비·기념품 지급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 학생과는 스승의 날을 맞아 '재학생 모교 방문' 행사를 실시한다.

고교동문회 또는 개인별 희망자 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이며 방문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이다. 학생과에서는 접수한 학생에 한해 방문하기 전날 교통비 1만원과 기념품인 우산을 제공한다.

지난해 약 1백 50여 출신학교 학생들이 방문행사에 참여하는데 비해 올해는 신청접수 첫날인 9일 오후 3시 현재 재 1백 33개의 출신학교 학생들이 접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한 관계자는 "스승의 날을 맞아 모교선생님을 찾아뵙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본교, 대극대 학술교류

본교와 일본 대극(오타니)대학의 '학술교류협정 체결식'이 지난달 2일 두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 교무위원 회의실에서 있었다.

학술교류협정은 교환학생 및 교환교수의 파견, 공동연구 실시, 학술 자료 및 정보 교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자료 수집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술교류부 양영진(사회학)부장은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제도이니만큼 학생들과 교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 불대, 불교도주간 가져

불교대 학생회(회장=정의석·선3)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를 불교도주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벌였다.

'불대에서 동양, 동양에서 북불'이라는 기치 아래 치러진 이번 행사는 △ 6일 = 불상앞 예불, 불교도 주간 선포식 △ 7일 = 다도강좌 △ 9일 = 법회, 강연회, 동악내 제등행렬로 이어졌다.

한편, 이 기간 중 모금활동 위주로 북한통포품기 운동이 진행되었고, 지난 8일 불상앞에서는 강종원(인철4)군의 북한통포품기 기금 마련 콘서트도 열렸다.

## 교환학생 선발시험

연구교류처(처장=박기덕·수학) 학술교류부는 지난 9일 마감한 교환학생 지원서를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실시한다.

교환학생 선발대학 및 선발인원은 중국의 남경대 2명, 대만의 중국문화대 3명, 미국 미시간주립대 5명이며 각각 13일과 15, 16일 치러진다. 선발시험은 지원대학 해당국가어로 된 필기 및 면접으로 치러진다.

선발된 교환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를 지원 받게 되고 97년 2학기부터 98년 1학기까지 자매대에서 수강 및 학점이수가 가능하다.

## 대학원, 도서전시회 개최

대학원 총학생회(회장=문인식·사학 박사과정 3학기)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도서관 앞에서 도서전시회를 개최한다.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문인식군은 "이번 도서전시회에서는 일반 서점에서 구하기 힘든 외국 전공 서적을 전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대, 대표자회의 열어

공과대 대의원회(의장=한재규·토목공3)는 학생 대표 회의를 오는 13일 오후 6시 원흥관(1110)에서 실시한다.

이번 회의는 공과대 정·부 학생회장 및 집행부 인준을 위해 개최한다. 공과대 대의원장, 각과 학생회장, 각과 학년별 대표, 공학계열 대표 5인, 건축토목공·전기전자공학부 학년별 대표 2인과 정보산업학부 대표 4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97년 특별학술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

### 조영록, 손해목, 최준상 교수에 증서전달

연구교류처(처장=박기덕·수학) 연구부는 97학년도 특별학술연구비 지급대상자를 선정, 지난 8일 개교 91주년 기념행사에서 조영록(사학), 손해목(법학), 최준상(수학교육)교수에게 3백여만원의 연구비와 증서를 전달했다.

"전공분야의 학술발전에 크게 기여

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수들의 학술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고 의의를 밝힌 연구부 이영우(행정학)부장은 "이번 특별학술연구비 지원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각 분야의 교수들이 3차에 걸친 엄중한 심사를 치렀다"고 밝혔다.

## 정각원,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 개최

정각원(원장=이범산·선학)은 오는 14일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개최한다.

오전 8시 30분부터 치러지는 이번 법요식은 △삼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오복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이범산 정각원장의 분향 및 관육 △오복원 이사장, 이범산 정각원장의 봉축

법어 △송석구 총장의 봉축사 △정경 △발원문 △사홍서원 △공경사상 △다과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불기 2541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봉축 법요식을 열 예정이니 학생·교직원, 교수 등 전 동국인과 일반 불자들의 많은 참여바란다"고 안중철 법사는 말했다.

## 오는 17일 무료 모의 토익시험

### 학술문화관에서 9시30분부터... 미달인원 계속 접수중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 취업과는 오는 17일에 실시될 모의 토익시험의 응시접수를 9일 마감했다.

당초 2일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모집인원이 미달인 관계로 9일까지 연장해서 접수를 받았고 최종 재학생 1천3백명의 접수를 받았다.

한편, 모의 토익시험은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개교 90주년 문화관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수성사인펜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6월10일경 개인에게 토익분석표를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시험장까지는 취업과에서 미달된 응시자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취업과 한 관계자는 밝혔다.

## 사과대, '참정치 대학생 운동'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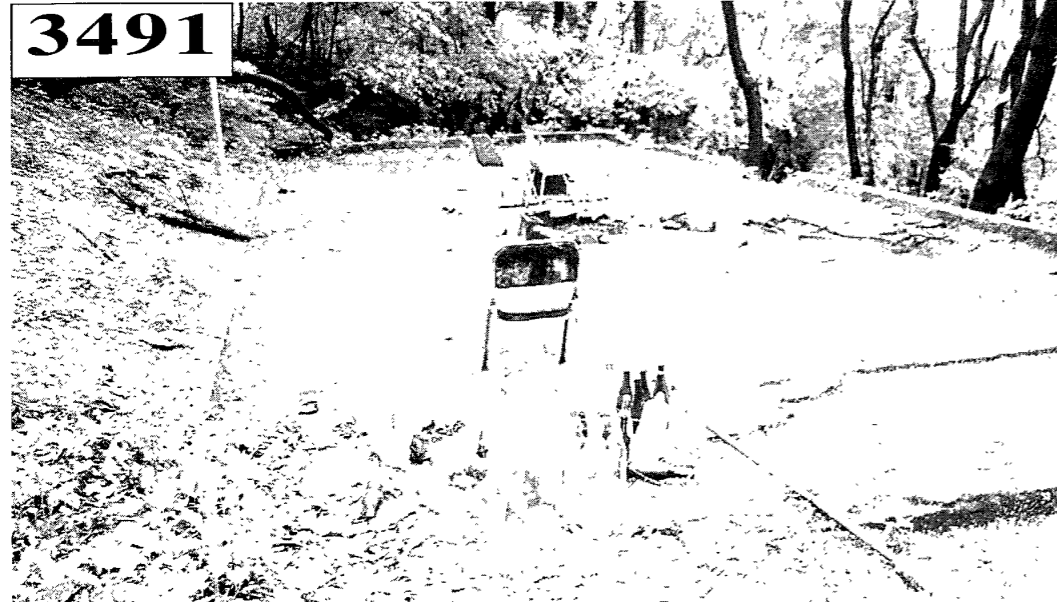
### 지역차별 해소와 진보정치 세력화 위해

사회과학대 학생회(회장=이왕재·사회4)는 5월 의제로 대선정치활동등을 상징하고 이에 따른 활동사업으로 '지역차별 해소와 진보정치세력화를 위한 참정치 대학생 운동'을 추진한다.

활동일정은 다음과 같다 △ 둘째주, 셋째주 = 기획대자보, 팸플렛, 서명운동, 미숫가루 판매, 피켓팅, 지역차별 지도 그리기 실시 △ 넷째주 = '지역차별 해소와 진보정치세력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5회에 걸쳐 강연회 주최

한편, 문화토론공간 조성을 위해 매주 화요일 '화요 영화제'를 개최한다. '북제인간과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주에는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 '블레이드 러너'를 상영한데 이어 이번주(13일)에는 오후 1시 '블레이드 러너', 오후 6시 '1A 2013'을 사과대 학생회실에서 상영한다.

사과대 학생회 한 관계자는 "앞으로 참여자 수에 따라 더 넓은 장소로 옮기는 것을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3491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현락의 도시(?) 라스베가스에는 술병이 너무 많다. 바로 우리가 버린 것들인데... 지성인이라면 자기행동에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 (오인택 기자)

### 제 7회 춘계 명찰 순례

옛 선인의 숨씨가 돋보이는  
신비의 도량 내소사  
고려동종의 종소리와 어우러져  
우리의 가슴을 두드린다.

새벽 예불과 함께  
능가산의 봄을 만끽하며  
대자연과 맑은 공기를 맘껏 호흡하는  
명찰순례에 우리 동국인을 초대합니다.

1. 개최 일자 : '97. 5. 23(금) ~ 24(토)
2. 장소 : 전라북도 능가산 내소사
3. 참가대상 : 전 동국인 (75명)
4. 참가비 : 일만원 (10,000)
5. 접수기간 : '97. 5. 12(월) ~ 5.22(목)
6. 접수처 : 학생과 (본관 1층)
7. 출발장소 및 시간 : 도서관 앞, 5월 23일 (금) 오후 3시

※ 75명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접수함

정각원장  
학생처장

### 해외 자매대학 어학 연수자 선발

97학년도 하계 해외 자매대학 어학 연수자를 다음과 같이 선발함

- 다 음 -

1. 국기명 : 미국
2. 대학명 : 메인 주립대학, 뉴욕 주립대학(스토니브룩)
3. 선발인원 : 연수 대학별로 각 20명
4. 지원자격 : 본교 학부 (대학원) 재학생
5. 특전 : 학점인정 ('해외영어연수' 3학점)
6. 연수내용
  - 가. 메인주립대
    - 1) 기간 : '97. 7. 15 ~ 8. 23 (6주간)
    - 2) 경비 : 약 달러 3,800 (수업료, 숙식비, 왕복항공료)
  - 나. 뉴욕주립대
    - 1) 기간 : '97. 7. 14 ~ 8. 8 (4주간)
    - 2) 경비 : 약 달러 3,380 (수업료, 숙식비, 왕복항공료)
- \* 기타 비자수수속경비 등의 제반 경비는 별도부담
7. 신청기간 : '97. 5. 19(월) ~ 5. 23(금)
8. 신청장소 : 학술교류부 (전화 260-3025)
9. 신청서류
  - 가. 어학 연수 신청서(소정양식) - 학술교류부 (본관 2층)
  - 나. 재학 증명서

연구교류처장

### 대학원 연구논집 원고모집

1997학년도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제27집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1. 논문집 명칭 : 대학원 연구논집 제 27집
2. 투고 대상 : 본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본 대학원 출신 시간강사, 본 대학원 조교
3. 원고매수 : 인문·사회계 - 200자 150매 이내 (글로 작성시 A4용지 25매 분량)  
자연계 - 200자 100매 이내 (글로 작성시 A4용지 20매 분량)
4. 제출부수 : 교정용 및 심사용 4부, 디스켓 1장 (글로 작성시)
5. 제출처 : 대학원 교학부 (전화 260-3093, 3094)
6. 원고 마감일 : 1997년 8월 29일(금요일)
7. 게재통보 : 1997년 10월 중 게재통보
8. 발행 예정일 : 1998년 1월 30일(금요일)
9. 원고는 별첨된 투고요령에 준하여 작성해 주시고, 한글을 이용하여 A4용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응모하여 통과된 원고를 교정할 때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논문집에서 제외되므로 게재 계획에 따른 교정일자를 꼭 지켜 주시어 논문집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장

### 교수회 체육대회 개최

금번 교수회에서는 교수들의 건강증진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교수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여러 교수님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1997.5.24 (토) 10:00 - 16:00
2. 장소 : 본교 체육관
3. 종목 : 배구, 농구, 족구 / 피구, 탁구 (친선게임)
4. 상금 : 종합우승(20만원), 각 종목우승(10만원)

※ 생활협동조합에서 점심식사를 지원합니다.  
※ 기념품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 현재 교무위원과의 친선게임을 우선중에 있습니다.

교수회

영상매체비평

영화 - 바리게이드

정 제 형

연극영상학부 교수·영화평론가

이 영화는 제3세계가 겪고 있는 자국의 사회적 내부 모순을 그대로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는 제3세계 영화의 한 전형이다. 표면적인 이야기의 소재는 우리나라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을 폭로하듯 그리고 있지만 사실상 그 이야기는 하나의 소재일 뿐이다. 그 이야기의 함축적인 이면에는 우리 현실이 갖고 있는 온갖 부조리와 모순이 함께 놓여져 있고 그것을 거시적으로 읽어 아 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제3세계 텍스트의 전형적인 미학인 일레고리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속엔 세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나온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세 노동자는 결혼한 칸과 아내 부드, 미혼인 자키 셋이다. 민족적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는 성격의 칸과 순종적인 자키는 항상 서로 대립하면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미움을 받는다. 고용주에 의해 아내가 강간당한 후 분노에 겨워 대립하게 된 칸과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치지 못하고 비굴하게 생활해가는 자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이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용이 다시 불거진다.

영화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갖는 한국 노동자들의 시선에 문제의식을 던진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파란색 옷에 겨워 고용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화풀이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한다. 그들은 같은 노동조건을 갖고 있는 노동자끼리하면서도 다른

불법체류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 폭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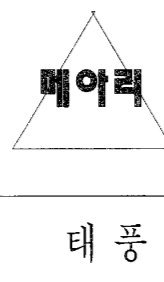
거시적 사회 메시지 음미해 볼만

이유 때문에 단결하지 못하고 한 쪽이 다른 한쪽을 또한 억압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계급이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는 구조를 갖는 것이 전형적인 제3세계 사회의 모순적 구조이다. 그러한 구조는 한국인 직원 세 명의 관계를 통해서도 또한 나타난다. 친구 사이인 노동자 한식과 용승, 경리직 사무원인 금희와의 관계가 그것이다. 금희를 사이에 두고 두 남자의 우정에 금이 가고, 결국 금희는 이들 둘을 배반하고 사라진다.

관객의 동정을 가장 많이 받는 인물은 그중 한식인데 그건 그의 아버지가 70년대 미국에 온배려받던 노동자였으며 이제는 폐인이 되어 방안에 틀어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식의 불행한 가정사는 관객에게 노동자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각을 형성케 한다. 70년대 미국인들이 갖었던 한식 아버지에 대한 부담만 대우는 90년대 한국인들이 방글라데시 노동자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시선과 같이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영화는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속의 '타



자를 바라보게 하며, 그 '타자가'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가정을 설득시키고 있다. 나아가서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문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모순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다는 제3세계적 사회의 모순을 역시 바라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거시적인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목케 한다.



▲우리는 흔히 대학생들 두고 '지성인'이라 말한다. 지성인이라 함은 한마디로 '깨달은 자라 표현 할 수도 있고 달리 '스스로 사리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듯 지성인들이 모여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실현시키는 곳을 대학이라 부른다 ▲지난달 21일 본교 경주캠프 주변 모 숲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더구나 그 사건과 관련된 이들은 본교 1만 지성인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의 간부라고 한다. 그 후 본교는 뿌리 없는 소문들로 어수선하다. 범행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때를 지어 폭행했다는, 사건을 숨기기 위해 입을 맞추었다는니 하는 등 사건 전말의 주리 내용도 있고, 마치 요즘 정치권에 흔히 등장하는 비자금과 비슷한 이야기 나오기도 하며, 캠페인들의 이런 싸움인 듯 보는 그런 이야기도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고 있으며, 뚜렷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학생들 앞에 당당히 나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소시키려 하지 않는 것일까? 또한 학생들의 대표자로서 실추된 학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이번 사건으로 잃어 버린 것은 1명의 교우만이 아니다. 대학의 순수함과 열정. 그리고 동국인 모두의 지성을 잃어버렸다. 이제 학생들은 더이상 총학생에게 '공감'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며, 총학도 한쪽 날개가 꺾인 상태에선 더이상 의 비상은 힘들 것이다. 이런 시기에 태풍을 잠재우고, 동국의 실추된 지성을 찾기위한 총회의 모습과 부처님의 자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신>

천년 역사 황성공원에 체육관 건립공사 완공

'문화유산의 해' 시대적 조류역행...문화재 보호 급선무

면 옛날 청동기 시대 조상들의 생활 터전이자 신라 시대 6부 촌장이 한자리에 모여 총대사를 논의했던 역사의 현장, 황성 공원이 경주시의 무분별한 개발 정책으로 망쳐져 가고 있다.

본교 경주캠퍼스에서 10여명이 걸리는 황성 공원은 1천년의 역사를 실감케 하는 고목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학생들과 시민들의 휴식과 사색 활동에 적합한 곳이다.

그러나 경주시는 문화재 가치와 시민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근시안적 개발 논리로 황성 공원을 파헤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정한 '문화유산의 해'의 시대적 조류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시는 지난 1월부터 황성 공원의 사유지 1만 3천여 평을 매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종합 실내 체육관을 건설 중에 있으며, 이는 내년 9월에 있을 문화엑스포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 장소로 이용하기 위함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원 내의 체육관이 완공되는 대로 야구장과 테니스코트 센터, 다목적 운동장 등 20여 개 체육 시설을 세울 계획에 있다.

이에 경주 경실련·경주 환경 시민의 모임 등 28개 문화·시민 단체들과 본교 교수들이 경주시의 무분별한 계획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본교 임배근(지역 정책 연구소 소장)교수는 "경주는 세계에서 드물게 한민족 동안 한 나라의 수도로 지정되어 시 전체가 하나의 문화재 명어리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지금 진행 중인 실내 체육관 공사는 중지되어야 한다"며 "정부도 이제 가정 '고도 보존을 위한 경주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종합적인 고도 경주 보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주 경실련 김창선 기획부장은 "경주의 균형적인 발전적 측면에서 실내 체육관은 황성 공원이 아니더라도 지을 곳은 많으며, 지금이라도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바람대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경주를 흔히 '천년 고도의 도시'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불국사, 석굴암을 비롯한 무열왕릉, 천마총 등의 수없이 많은 문화재가 현존하고 있으며, 아직도 땅 속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경주시는 그런 문화재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는 현장에 시멘트를 덮고 고층 빌딩을 세우며, 울창한 고목들 틈에 인공 고층 건물과 체육시설들을 건설하는 모습은 단순히 문화재가 단기간 수익성에서 장애 요인으로 존재한다는 논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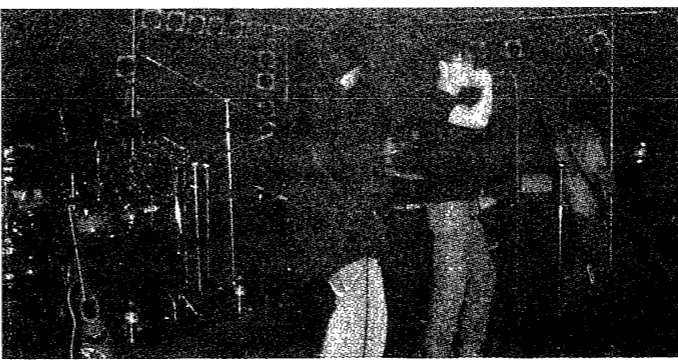
현재 1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황성 공원에 커다란 인공 건축물이 들어서려 하고 있으며, 시민, 학계, 언론

등의 심한 질타를 받고 있으면서까지 경주시가 건축을 강행한다면 이는 역사적 공원을 훼손함과 동시에 먼 훗날 역사적 실권을 받게 될 것임은 분명한 이치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체육관 건립을 즉시 중단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검토 돼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문화재 보호 측면을 다시 생각해안 하겠다.

<신용우 기자>

◇ '천지인' 콘서트 관람평

저항정신·언더그라운드 세계 담아낸 열정의 무대



'이번엔 내가 네 머리 속을 열어 봐야겠어 그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커다란 수저로 때려야겠어 그 머리속에 서 남아 써서 날새기는 생각'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낮은 바닥에서 원하는 것 무엇하나 가진 것 없다 주님을 하지' 등의 가사말과 rock이라는 형식을

통해 저항정신과 사대의 언더그라운드 세계를 추구하는 그룹 '천지인'이 2집 앨범 발표에 맞추어 신촌 라이브 극장 '넷'에서 지난 4월22일부터 5월5일까지 콘서트를 가졌다. 93년 4월 천지인 결성 동국대 공연으로 본교와 인연이 있는 천지인은 보컬

남기현, 기타 이상석, 베이스 박우진, 건반 김정은, 드럼 장석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계천엔가' '청소부 아저씨'가 그를 만들며' 등의 대표곡이 있다.

93년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5백여 여회의 공연을 해 오면서 정성유용을 거치지 않은 독립음반 1집이 현장판매만으로 5천장의 판매고를 기록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대학가의 그룹으로 대학의 저항정신을 대변해왔다.

이번 2집 앨범 발표와 동시에 통합 5백55회차의 콘서트를 갖게된 '천지인'은 "진보음악이 갖고 있는 단조로운 멜로디와 리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고민을 해왔다"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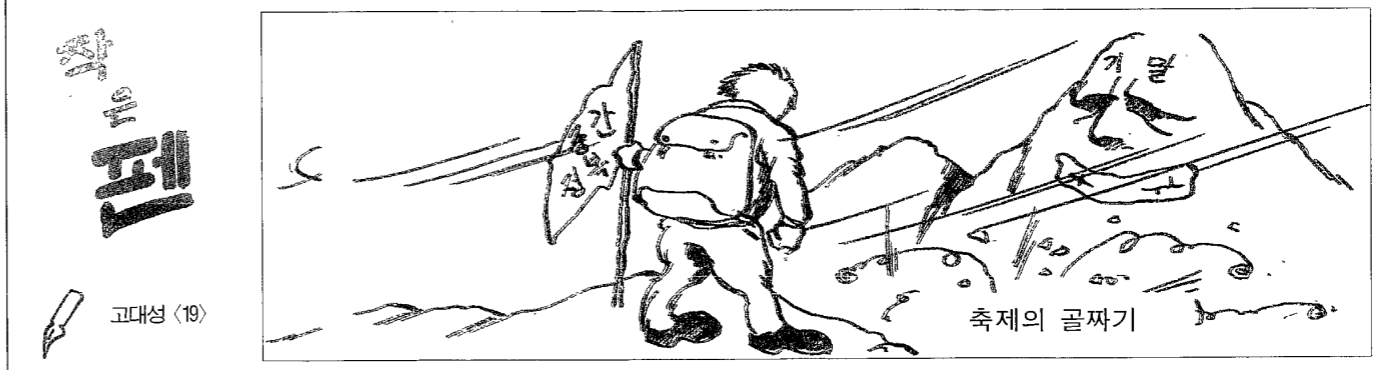
이번 공연에 맞춰 발표하게 될 2집 앨범 '이(難)·집(集)'은 이합집산의 준말로 '날 내버려둬', '여의도에 서식하는 한 생물에 대한 생태보고서', '모르

면서 '바닥'과 같은 FUNKY ROCK과 곡 재구 사인의 시에 곡을 붙인 '희망을 위해서' '연애여가'에 동중한 시를 붙인 '검문' 피아노 선율의 이방기드 록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병태'등의 곡이 있다.

이번 콘서트는 위풍당당한 행진곡 풍의 정확한 발성법의 1집과 광기만 리듬과 경쾌한 리프 연주스타일의 2집이 어우러진 분위기에서 그들의 끝내를 벗어난 새로움을 향한 열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무대가 된 동시에 정열적이고 강렬한 rock에 빠져든 2시간의 시간이었다.

콘서트를 보고 김미정(연세대 기계전 자공학부2)씨는 "동아리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관심이 있어왔는데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공연열정을 정리했다.

<최정식 기자>



正道경영·초우량LG

다시 받은 학생증

졸업후 2,3년 월급쟁이로 살다보면, 자기개발은 고사하고 학창시절 꿈과 개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가슴에 남는 건 회의뿐이죠.

하지만 LG에서는 다릅니다.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이고, 전문 경영자를 키우는 HPL 과정과 글로벌 MBA 과정, 해외 석·박사 과정 등 수준 높은 인재육성 제도를 통해 당신을 큰 인재로 만들어 드립니다. 또한 국내 기업 최초로 실시하는 사내 벤처(Venture)제도를 통해 사업가의 꿈도 실현시켜 드립니다.

어때요? LG라는 대학원에서 월급까지 특특히 받으며 하고싶은 공부와 자기개발을 마음껏 하는 건!

LG / 인재개발위원회  
http://www.lg.co.kr